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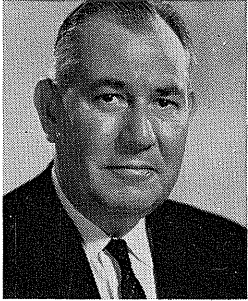


특 집
교회의 바탕이 되는 믿음

성도의벗 4
1969

1967年 10月 4日

제1부부터 제4부



영감의 멧세지

존 룽 든

(십이사도 정원회)

오늘날 교회 전체를 통해서 볼 때 노소를 막론하고 지부, 와드, 스테이크, 그리고 선교부 등지에서 지도와 봉사의 직에 부름을 받은 사람의 수효가 수천에 이른다고 하여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지상에 아름답고 영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는 이 두 구룹의 사람에게 신성한 의무가 지워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희는 준비하여 장차 임할 일에 대비하라. 이는 주께서 가까우심이라.” (교리와 성약 1:12)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은 “현세와 내세의 훌륭한 삶을 위하여 자신과 이웃을 준비하라.”는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라, 그리하여 높은 곳에서 내려온 이가 말하는 것같은 음성을 들으라. 이는 능력이 있고 강력하여 땅 끝까지 퍼져 나아가며 참으로 그 음성은 사람들에게 들리나니, 이르기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굳게 하라 하시는도다.” (교리와 성약 65:1)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전할 말씀이란 이러한 길을 준비하려면 적어도 도덕적이며 영적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록 부름을 받든지 혹은 주님의 재림시까지 이곳에 머무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많이 실려 있는 친구약 성서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라는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열심히 준비하며 또한 지상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1967년 10월 4일

공보부 등록 라-932

발행일 1969년 4월 1일

(통권 제45호)

발행인 : 서 현 보

편집인 : 홍 무 광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 선교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제210호

인쇄소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정가 : 50원

1년 구독료 (우송료 포함)

국내 450원

국의 선박 5불, 항공 7불

제5권 제4호

순서

1969년 4월호

우리의 주님 구세주 데이비드 오. 맥케이.....	1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래리 에이취. 피어.....	3
주일학교 : 스스로 생각하게 하라 린 스토다드.....	5

● 교회의 바탕이 되는 믿음 ●

◇ 삼라만상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매리온 지. 롬니.....	8
◇ 너희가 경전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매리온 디. 행크스.....	13
◇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르스 알. 벡콩키.....	18
◇ 신앙 보이드 케이. 팩커.....	22
◇ 회개 에이. 데오도르 터틀.....	26
◇ 침례 폴 에이취. 던.....	30
◇ 성신의 은사 에스. 딜워스 영.....	34
세계 기록 대회 더그라스 디. 팔머.....	39
<선교부장 멧세지> 영혼을 위한 투쟁 서 현보.....	41
<지방부장 멧세지> 시온에 나오라 차 중환.....	42
내외소식.....	43

어린이 성도의 벗

십자가의 수난과 부활

<공작 교실> 부활절의 토끼 수잔의 놀라움

표지설명 : 물문경의 번역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영적인 통찰력과 열의로 이루어진 위업이었다. 표지 그림은 데일 킬보온이 그린 유화로 금판에 쓰여진 글자를 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젊은 예언자를 잘 묘사하였다. 이번 호에는 “교회의 바탕이 되는 신앙”을 특징으로 꾸며보았다.

우리의 주님 구세주

대관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 우리의 만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홀연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누가복음 2 : 13~14)

부활절에 즈음하여 우리는 이 지상에 주님의 사명을 알리는 주님의 탄생에서 밝혀진 세가지의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 둘째는 평화, 셋째는 모든 인간에 대한 선한 뜻—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 행복, 형제다운 친절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첫째 원리인 경건함을 이 지상에 생존하시는 동안 항상 구체적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전도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이르셨을 때 그보다 앞서 길을 예비하기 위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 : 15)

산 위에서 그의 발 아래 놓인 세상의 권세와 재물로 시험을 받으시던 주님께서 근엄하게 하신 말씀을 또한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누가복음 4 : 8)

주님께서서는 십이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밤을 새우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실 때 “이

를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마태 6 : 9)라고 하여 맨 처음의 기원으로서 경건함을 드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5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홀로 기도하려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날은 가버나움에서 대중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 떡을 먹었고 배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슬퍼하시던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 17 : 3)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22 : 42)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20 : 17)

둘째 원리인 평화는 “인간에 대한 최초의 축복”인 행복한 인간 본연의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평화 없이는 행복해 질 수 없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께서는 “행복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우리가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이 길은 미덕이요, 의로움이며, 성실함이며, 거룩함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정사 제5권 제134페이지)

예수님은 산상 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 5 : 9)

주님께서서는 평화에 이르는 근본적인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하나이까?” 하고 질문을 받았을 때 “셋돈을 내게 보이라.”고 주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 왔거늘 예수께서 말씀 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 22 : 17~21)

주님께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치실 무렵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 16 : 33)고 하셨습니다. 또한 같은 무렵에 그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 14 : 27)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그의 말씀과 마음 속에

있었으며 그가 무덤에서 나와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하신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요한 20 : 19)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바 평화가 있으면 개인은 근심에서, 가족은 분쟁에서, 국가는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평화는 공중에게 관련된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도 관련됩니다.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음성인 자기 양심의 소리에 진실치 못한 사람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욕이나 욕망에 빠지므로써, 육체의 유혹에 따르므로써, 신의에 진실하지 못하므로써, 혹은 법에 저촉된 행위를 하므로써 자기의 양심에 진실하지 못하므로써 그사람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셋째 원리인 형제다운 친절은 형제간의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그의 멧세지를 특별히 선택된 이스라엘의 집에 주셨다 할지라도 국적을 중요시 한 것도 아니며, 그는 편파적인 분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신앙으로 그를 찾아와 그녀의 딸을 축복해 주시길 간청했을 때 주님께서서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 15 : 28)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베셋다의 못가에서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죄를 저서 잡혀온 여인에게,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타일러서 보내셨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들에게도 형제애를 베풀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부자이며 떨시받는 세리장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였으며 결코 형제애를 받아 본 적이 없던 그가 주님께 이르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하니 주님께서서는 복음의 정신이 그의 마음에 들어간 것을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19 : 5, 8~9) 이분이 바로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이요,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논쟁하는 율법사를 파하셨으며, 약으로 낫지 못하는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지금까지 작곡된 가장 위대한 음악에 영감을 불어 넣어 주셨고, 수백 수천의 책에도 영감을 넣어 주었으며, 선교사들이 온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도록 고취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가 명성을 얻은 사람들의 세계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역사가는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면에서 절대적인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증보자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사도 4 : 12)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래리 에이취. 피어

● 얼마전 20세기 문학에서 다루고 있는 여성의 본분에 대하여 대학생들과 토론하는 중에 우리가 호홉하고 있는 “비틀린 세대”들이 잃어버린 여성의 이상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미덕 그 자체의 개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절망적인 견해를 가진 젊은이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문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 세대는 스스로 그 갈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의 세대와 그와 같은 갈등에 더욱 많은 관심을 쏟는 것 같습니다.

반 학생들이 그들이 읽고 있던 책에 소개된 생소하고 별로 관심이 없던 여주인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 한 학생이 이러한 문제의 영구성과 보편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구약성서 시대로 소급해 올라가서 잠언의 저자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은 영원하다 ■

잠언 31장을 주시해 보면 현숙한 여성의 특성과 여성다운 미덕

의 진정한 요소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을 퓌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파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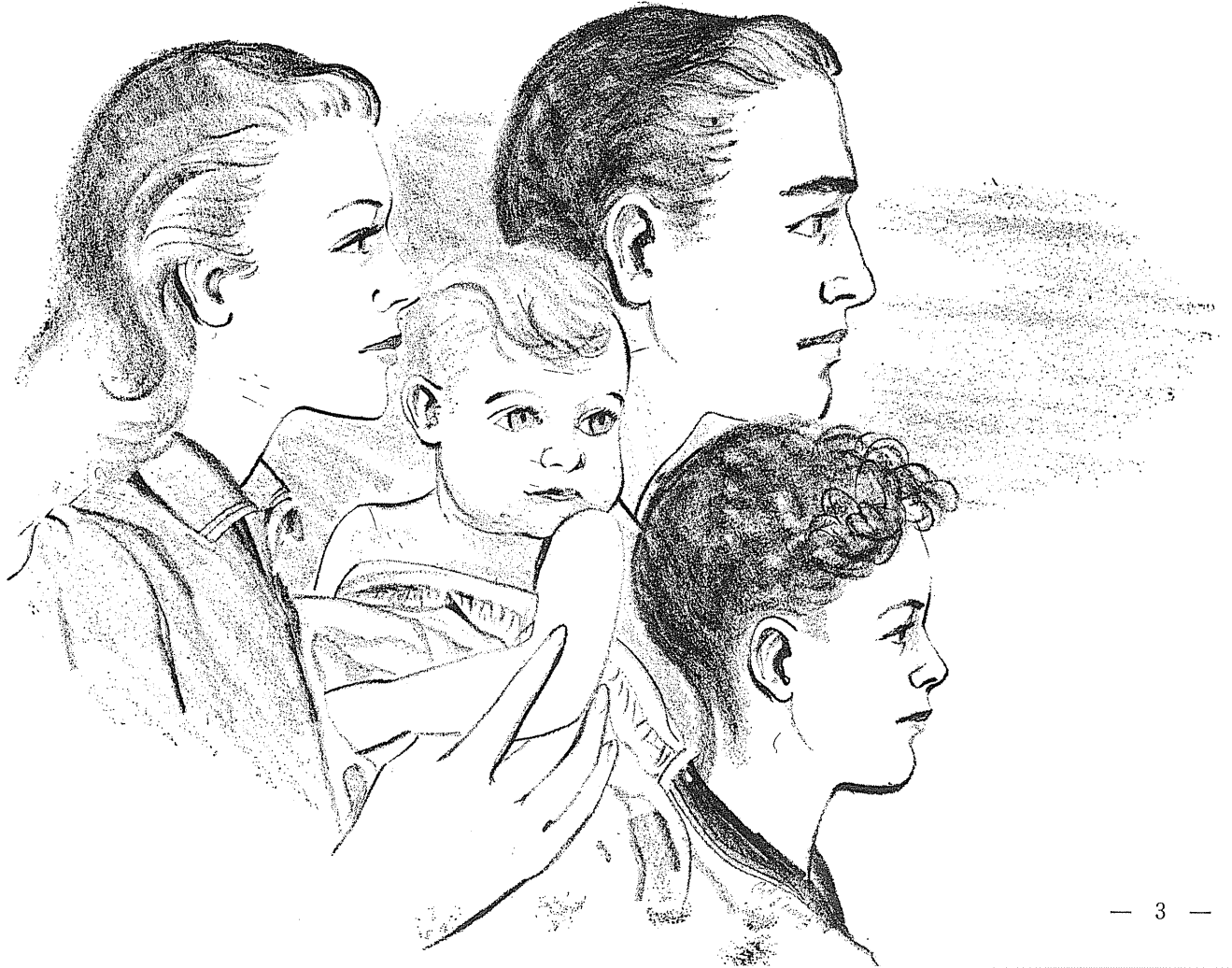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 집 사람들은 다 흥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분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되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헤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때는 여러 여자 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잠언 31 : 10~31)

현대의 예언자들은 이 고대의 역작이 지닌 건전한 개념을 확증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이상이 모든 다른 복음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은 훌륭한 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미덕이라는 주제를 전개시킬 뿐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의 가정주부로서, 아내가 맡은 바 임무가 어느 정도이며, 당시 그들이 가정에서 하던 일이 어떤 것들이었는가를 잘 묘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의 저자가 자기 나름의 “적용된 종교 생활”의 한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과 그의 글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많은 지침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공동 사회의 많은 관계적인 것과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격언을 들어 이야기 함으로써 독자들과 접촉하고 싶어했습니다. 31장에 나타난 평범한 운율은 그의 슬기로운 작품이 그 당시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명확하고 거짓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오늘날 사는 독자들에게 특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 보다 더하니라.”라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진실한 여인은 복이 있나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라고 했습니다(잠언 31 : 10~11)

백케이 대관장님은 “단순한 걸치레는 많은 천박한 욕망을 가진 자들의 감각을 기쁘게 할 뿐이나 진정한 여성의 영혼과 정숙함으로 된 치장은 생을 영위하여 나가는 성실한 남성의 영혼에 언젠가는 이 세상을 구원할 영원한 원리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라고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잠언 31 : 12)

■ “선을 향하는 자” ■

현숙한 여인이 지닌 가장 훌륭한 특성 중의 하나는 그녀가 “선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서는 누차 이런 개념을 되풀이 해서 내세우고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의 앞 구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통 “선행”은 은유한 몸가짐과 관련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미덕은, 현숙한 여인은 뒷공론이나 비방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로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잠언 25 : 23, 24를 보라.) 또한 이러한 은유한 정신은 현대 경건들이 많이 주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을 보면, 엠마 스미스는 “네가 부름을 받은 직분은 나의 요셉 스미스 이세 곧 네 남편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은유한 마음으로, 위안하는 말로써 위로하는 일이다.”는 충고를 받았읍니다. (교리와 성약 25 : 5)

잠언의 저자가 강조하는 세번째 것은 현숙한 여인은 손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리미질, 뜨개질, 식생활에 관한 계획 등, 현대적인 광범위한 일과 함께 바느질, 요리, 잔손일 등을 하는 것은 현대나 고대가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손수 일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꺼이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집 주변의 일을 손수 할 수 있다는 자기의 능력을 기뻐합니다. “물레를 돌리고” “자기 의사로 일하는” 그녀의 능력은 옛날에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이 체계화된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늙어서 시련과 재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가정의 필수품을 손수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올런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 “그녀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

오늘날 여성다움에 대한 개념이 상실된 것은 아니지만 그 대신 태초로부터 오늘날까지의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주어진 영원한 법과는 정반대로 곡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미덕이 곡해되고 있다는 사실도 뚜렷합니다. 미덕은 항상 경전에 있는 어떤 특성들과 연관되며, 현숙한 여인의 세가지 특성이 경전 가운데에 여러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째 미덕은, 뒷공론과 비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헤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31 : 26)

둘째 미덕은, 더럽혀지지 않은 신성한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백케이대관 장님은 “순결은 아름다운 여성의 변류관이다.”라고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미덕은, 게으름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는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녀는 “게을리 얻은 빵을 먹지 아니”합니다. (잠언 31 : 18,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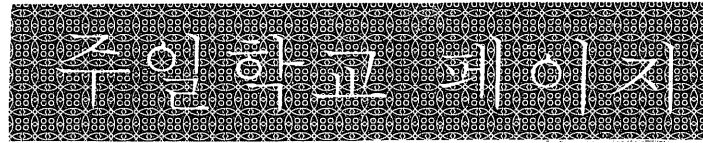
그러므로 “현숙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여인”이 되려면 그들은 경전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이란 신뢰할 수 있고 선을 행하는 자이며, 집안에서 기꺼이 일하는 자이며, 교활하지 않고, 도덕적이며 성적으로 깨끗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이나 매력 뿐만 아니라, 주님께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미덕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의로운 결혼을 위한 것이며, 신전 서약을 굳게 지키는 것이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을 제시하실 때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의로운 일을 행함으로써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며 그리하여 그의 가족은 영원히 결합하여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잠언에 기록된 이 평범한 말씀은 인생의 경험을 잘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여성의 인격과 교육을 각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 여성들과 소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이 경전이 주는 가치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이 받는 보상은 승영입니다. ○



사진 : 에이취. 암스트롱 로벗스



새가 성장해 가는 과정 중에는 둥우리를 떠나는 것을 배워야 할 때가 오는 법이다.

엄마새와 아빠 새가 나르는 법을 보여 주고 격려해 줄 수는 있겠으나 날개에 힘이 생겨서 날 수 있을 때 까지 요하는 노력은 어디까지나 아기 새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각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모세서 4 장 3 절 참조)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음을 배우고 생활하는데에 얼마나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결정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부모와 교사로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때때로 복음에 대하여 어린이들이 결정하게 될 것에 큰 영향을 준다. 때때로 지나치게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있다.

예를들어 우리들의 어린이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할 때 우리가 때때로 범하는 잘못을 생각해 보자. 참된 기도는 마음 속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느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 한다는 것은 가히 인식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어린이

어린이에게 스스로 생각토록 하라

린 스톤 다 드

에게 기도의 바른 형태 (구세주께서 마태복음 6 : 9~13에 주신 바와 같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나친 "지도"를 하여 어린이 답지 않은 말, 생각, 느낌을 말하도록 하는 때를 종종 본다. 이것은 어린이에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의 내용보다는 형태나 형식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기 쉽고, 기도를 하는 데에 틀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도록 한다. 이렇게 어린이가 기도하는 데 두려움을 갖게 되면, 어린이들은 가르쳐 주는 말에 의뢰하여 바른 말을 가르쳐 줄 때까지 기다리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일정한 기간동안 반복되면 그 어린이는 형식에 젖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도를 암기하는 식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는 자기의 자녀에게도 그런 방식의 기도를 가르쳐 그와 같은 기도나 "음식 축복"이 수 세대를 계속하여 전해지는 경우도 있게 될 것이다.

어른이 어린이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겠다는 자극을 받는 경우는 어린이가 잠시동안 생각을 하며 잠잠히 있을 때인 것이다. 언어가 부족한 어린이는 자기의 생각을 말로 옮기는 데에 시간을 요하게 된다. 우리(부모, 교사, 유년 주일학교 역원)는 생각할 시간을 주기 보다는 마음을 조리며, 막힌 말을 찾아 주기에 열의를 보이기 때문에 어린이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학생이 주일학교에서 할 이야기를 준비하며, 하는 것을 도와줄 때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된다. 어떻게 되어서인지 우리에게 어린이가 청중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할 이야기를 적어 주어 읽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가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의도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권장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암송하도록하여 자신의 생각과 느낌과 사고가 다른 사람의 그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어린이가 자신의 신앙과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어린이가 이야기할 내용이나 암송할 구절을 적어 주게 되면 어린이는 우리가 자기에 대하여 이 과제를 행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부모나 교사가 기도나, 할 이야기를 계속하여 적어주게 되면 어린이는 정서적으로 침해되어 그러한 과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실패와 과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어떤 일을 과감하게 수행해 나가지 못하게 된다.

교사와 부모가 자기만을 생각하여 자기가 어린이에게 보여준 표준에 미치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어린이의 자신과 독립심은 성장하기 어렵게 된다. 어린이의 생각이나 말하는 태도를 걱정하여 부모나 교사가 이야기할 내용이나 기도문을 적어 주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을 쫓아 드러냄

어린이들이 복음 안에서 십분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음의 질문은 우리가 그러한 답을 구할 때 안내역을 할 것이다.

1.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느낌 및 아이디어를 평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린이가 자기의 생각, 느낌, 아이디어를 평가할 줄 알게 될까?
2. 다른 사람들이 어린이에게 단련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어린이가 자신의 생각, 느낌과 아이디어를 표현할 줄 알게 될까?
3. 다른 사람이 어린이를 믿지 않을 때 어린이가 스스로에 대한 자신을 갖도록 될까?
4. 과오를 범해도 괜찮다는 그런 조건이 되어있지 않을 때 어린이가 힘든 일을 해 보겠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5. 어린이가 다른 사람으로 부터 용납되며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자신을 용납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위의 질문을 마음 속에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어린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최대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자유롭게 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유의지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 각자가 개인적으로 분투 노력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 것이다. 병아리가 알의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계속 노력함으로써 영생으로 향하는 오름길을 넘어갈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어린이의 발전을 위하여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어린이의 가능성을 충분히 펼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는 부모와 교사로서 어린이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주고 싶을 때 어느 정도는 해주고 싶은 욕망을 자제하여야 한다. 만일 “운반하는 일을 배우게 하려면 혼자서 나르도록 해야”할 것이다.

4월 성찬식 전주곡

DELMAR H. DICKSON

전주곡

후주곡

4월 성찬식 성문 봉독

장년 주일 학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 : 20)

유년 주일 학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 : 15)

교회의 바탕이 되는 믿음

삼라만상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매리온 지. 룬니
십이사도 정원회

“너희가 경전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매리온 디. 행크스
십이사도 보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르스 알. 맥콩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복음의 제일 원칙과 의식

신앙 보이드 케이. 팩커
십이사도 보조

회개 에이. 데오도르 터틀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침례 폴 에이취. 던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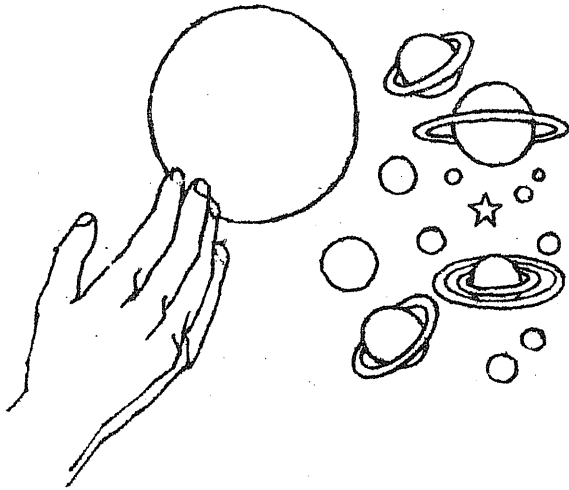
성령의 은사 에스. 딜워스 영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계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내려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다.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시니, 인자 같으신 분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아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니, 또 다른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기 있아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첫째를 보내리라.” (아브라함 3 : 22, 24~25, 27)

창세 전에 있었던 천국 회의에서 예수는 구세주로서 택함을 입으셨다.



이 택함으로 인하여 예수께서는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죽음을 맛보며, 죄없는 삶을 영위하고, 회개의 수단을 모든 인류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을 견디고 스스로 고통스러운 죽음에 목숨을 맡겨 죽음을 극복하고 온 세상에 부활을 확신시키는 모든 책임을 자발적으로 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게 하셨으며 이렇게 우주를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불사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엘로힘의 위대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인간이 영생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삼라만상에 펼치셨다.

그리스도는 천국회의에서 지구와 우주를 창조하도록 임명 받았다는 것은 다음 구절을 보므로써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때에 주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내려가자 하시고 태초에 그들이 내려가시니라. 그들 곧 여러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조직하시며 형성하시니라.” (아브라함 4 : 1) 이 지구와 그리스도와의 창세 이전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

는 이더서에 잘 나타나 있다. 여러분은 야벳 즉속이 대양을 횡단하기 위하여 배가 부른 나무통과 같은 배를 만들었음을 알 것이다. 배를 밝힐 방법을 찾던 야벳 형제는 “셀렘산”에서 돌 16개를 주워가지고 “우리가 바다를 건느는 동안 우리에게 빛이 있도록” 주께서 손가락으로 돌을 만지실 것을 간구하였다. 주께서는 이 돌을 만지셨으며 그의 위대한 신앙으로 야벳 형제들은 주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의 “신앙” 22페이지 참조)

더욱 이야기하는 중에 야벳 형제들은 대단히 큰 신앙을 증거하였으므로 주께서도 거기에 나타내어 보이시고 이르시기를,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비된 자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나로 인하여 나를 믿는 자마다 모든 인류가 영원토록 빛을 갖게 되어……

“……너희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이제 내가 보았느냐? 만인이 태초에 나의 형상대로 창조 되었느니라.

“보라 내가 지금 보는 바 나의 몸은 영체라. 내가 나의 영체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고, 이제 내가 네 앞에 영으로 나타내어 보인 것같이 나의 백성들에게 육신으로 나타내어 보이리라” (이더서 3 : 14~16)

예수 그리스도에도 관하여 참된 뜻을 갖고 그분의 신성한 영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기록으로 늘 고취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행하신 것에서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구속주로서 삼라만상의 주이시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12살이 되시어 신전을 방문하신 이야기에 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때에 부모님께 대답하시는 중에 그리스도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 : 49)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그분은 이미 자신의 본분과 지상에서의 사명에 관해 어느 정도 정통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려고 칫례를 받으신 것에서도 그것을 알게 되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가에서 하신 다음의 말씀에서도 자신이 삼라만상의 주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 : 13~14)

나사로의 무덤에서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하고 한 말에 대한 답으로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 : 21, 25~26)라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던 갓세마네 동산에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이 목숨을 바치신 십자가에서도, 부활 후 첫 아침의 동산에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그 사실이 나타나 있다. 마리아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 : 17)

이 사실은 1820년 신성한 숲에서 요셉 스미스 이세에게 아버지께서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요셉 스미스 2 : 17)고 하신 말씀에도 나타나 있다.

요한의 간증에서는 예수가 이 지구의 주이실 뿐 아니라 삼라만상의 주이심을 결정적으로 말하여 주고 있다.

“……나는 그가 태초에 계셨고 창세 이전에 계시던 그 영광을 보았다.

“[그는]—세상의 빛과 구속주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니, 세상에 오신 진리의 영이시라. 그 안에 사람의 생명과 빛이 있느니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인간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느니라.” (교리와 성약 93 : 7, 9~10)

요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의 간증도 이와 같이 결정적으로 말하여 준다.

“……우리 주의 1832년 2월 16일에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눈이 열리고 이해력이 깨쳐 하나님의 일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

“처음부터 아버지의 품안에 계셨던 독생자를 통하여 창세 전 태초부터 있던 것 곧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것들을 보고 깨닫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분에 대하여 간증하노니, 우리가 드리는 간증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복음이라. 저는 우리가 하늘의 시현 속에서 보고 대화한 분이시니라.”

“우리는 아버지의 우편에 있는 아들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또 보니, 거룩한 천사들이 있었고 그의 보좌 앞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있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며 또 영원토록 경배하더라.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 (교리와 성약 76 : 11~14, 20~24)

결론으로 나의 간증을 말하고자 한다. 주께서 삼라만상의 주이시라는 간증이, 진실이 또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계에 퍼져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비로소 사람이 영광을 누려 왔고 누릴 수 있음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초 인간!

완전한 인간됨과 충만한 신회가 겸비되어 있는 분.

아버지의 권능을 위임받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과거, 현대, 미래에 걸쳐 영원히 자존하시는 영원한 존재이신 여호와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 사랑하는 아들, 첫번째 영, 독생자라고 부르신 분.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이시며, 육체를 갖고 인간가운데 거하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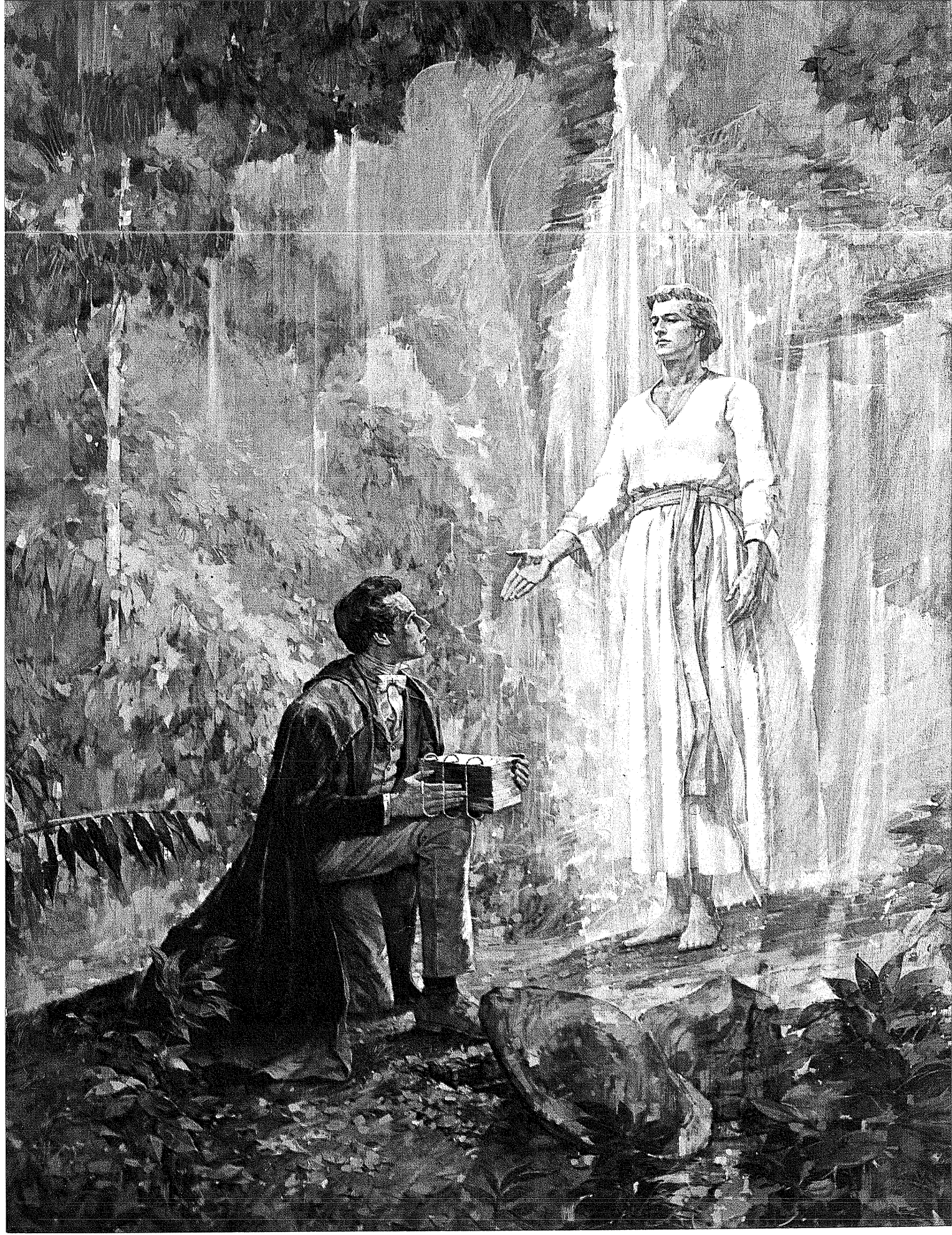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죽어야 할 몸으로 땅을 걸으신 분.

베들레헴의 아기, 나사렛의 소년, 비통과 친숙했던 고난에 찼던 분.

나의 만형이며 여러분의 만형이 되시는 분.

제임스 이. 탈메지

임프르브먼트 이라. 제36권 제69페이지



모로나이가 물론경을 시현으로 보여준다. 1400년 동안 세상에서 감추어졌던 고대 경전이 이 천사에 의하여 요셉 스미스에게 제시됨. 이것은 켈 릴레이가 그렸으며, 원본은 신전 광장에 있는 방문자 센터에 있다.

“너희가 경전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매리온 디. 행크스

십이사도 보조

● 독일 뮌히 근교 다카우에는 좀 이상한 기념관 하나가 서있다. 인간의 비인간성을 폭로한 상징이라고 하겠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몰아넣고는 가진 학대를 대하여 거의 죽게된 상태에 이른 사람을 깨스실에 넣어 학살하던 그 비극적이며 악명도 높았던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잔인하고 비극의 모습을 오늘날에도 역력히 찾아볼 수 있다. 일렬로 늘어선 채로 총탄을 받아 죽어간 사람의 피가 흐르던 도랑, 소위 공개 처형을 받은 사람이 올라서 있던 높은 탑, 개, 돼지 취급을 받으며 기거하던 막사, 무엇보다도 몸서리쳐지는 “샤워장”—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나와 몸을 씻어주어야 할텐데 스위치만 넣으면 깨스가 스며드는—이 세계나 달린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샤워장에 들어간 사람을 마른 종이 타듯 쉽게 태워버린 것이다. 그런 피로움을 당한 사람이나 또는 직접 집행한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무서운 비극이어서 할 말을 찾지 못하겠다.

이러한 비극, 고통. 막연한 죄의식을 품고 다카우를 방문하여 자기들의 추잡함을 은폐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영웅주의가 과연 어떠한가를 생각하고는 참으로 뜻있는 여행이었다고 믿게 되었다. 더구나 다카우의 참변을 용케 피한 사람이 쓴 책자를 발견하고는 참으로 느끼는 바가 많았다. 한번만 읽어보면 잊지 못할 인상적인 구절이 아닌가 싶다.

“인간이 다른 인간의 손에 있을 때는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러한 답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

인간의 마음이 제시하여 주는 해결책에서 답을 구할 수 있을까?

보다 확실한 근원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

다카우에 있었던 사람들은 양심에, 다른 동료인간에, 그

리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종류의 인간을 보았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동물로 취급할 수 있는 동물원직이인 통치자 만큼 강한 것이 없었을 것이다. 정치나 다른 사람의 손에 움직이는 사람은 누구도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친구에 대해서는 특히 도리에 맞게 그리고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인간은 본래의 야비한 속성을 버리고 인간성을 보다 높이려고 투쟁하는 존재다. 사람들은 자기의 안목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면은 운전기에서 쏟아져 나와 통찰력과 힘을 얻고져 갈구하는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무수히 많은 책이 입증해 준다. 이 책 중에는 정신과 육체와 영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중하게 여기며 헌신적인 삶을 영위하는가, 어떻게 친구를 얻는가, 어떻게 지력을 일깨우고, 어떻게 마음에 힘과 화평을 가져오는가, 어떻게 자신을 용납하는가, 어떻게 스스로를 희생하는가,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행복하게 되는가, 어떻게 안정을 얻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관한 수많은 종류의 책이 있다.

세상에는 거의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책이 있으며 그 중에는 유익하고 도움이 되며 건설적인 것이 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책을 든다면, 그것이 다른 책의 사상에 자기 주관을 조금 더 첨가한 것이든 아니면 발췌나 표절의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모은 책을 꼽을 수 있다. 이 “신성한 서적”에는 물론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가 추가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책이 자주 읽혀지지 않고 또 버려진 채로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책에는 인간의 말과 사상과 제안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진리와, 자녀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에

관한 이야기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과 관심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경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얼마나 경전을 읽는가? 우리는 경전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우리는 경전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경전을 소유하고 있거나 접할 기회가 있던 사람들 중에도 읽지 않는 사람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경전을 읽고 이해하는가를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빈번히 경전에 대한 지식과 감사를 잊고는 한다. 사람들 중에는 특정한 구절이나 이야기를 알고는 있으나 그 구절의 전후 관계나 그것이 쓰여진 환경 혹은 그것이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왜 우리는 경전을 읽어야 할 것인가? 경전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하여 경전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경전을 사용하며 이해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가? 경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경전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경전은 학자들을 위하여 특별히 쓰여졌거나 교재로 쓰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다. 경전에는 비할 바 없는 가르침과 철학, 윤리학 및 인간 관계에 있어 깊은 통찰력을 주며 훌륭한 시와 놀라운 역사, 의미심장한 철학, 그리고 가장 훌륭한 금언으로 가득차 있다. 경전의 주 목적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경전은 일반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들의 영적 안내를 위한 것이 본분인 것이다. 경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와의 관계를 언급한 것이다. 경전은 수 세기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의 신앙, 열망, 그리고 경험을 알려 주는 종교적인 서적이다. 경전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과 느낌을 권하여 주므로 중요한 것이며, 경전은 하나님과 인간을 “언제나 같은 시간에 같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경전은 인간의 상황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에 나타나는 인간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다. 경전의 목적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 양자에게 초점을 두는 데에 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깊은 통찰력을 통하여 각자가 왜 경전을 알아야 하며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 주셨다.

“경전이 영감에 차있고 신성하다는 것을 특징지워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경전이 쓰여진 정진과, 경전이 성실하고 양심적인 태도로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풍성함이다. 그러므로 경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그것이 쓰여진 목적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다.

경전이 의도하는 바는 인간에게 크게 영적인 은혜를 주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결속을 굳게 하려는 데에 있다. 모든 다른 경전과 마찬가지로 감사히 여겨야 할 성경도 영적인가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의하여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청소년 인스트라터, 제47권 1912년 제4월호, 제104페이지)

경전의 참된 축복은 그것이 “영적인 부”를 가져오며 “영적인 특별 축복”을 약속 하며 제시,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결속을 강하게 하여 준다는 데에 있다. 이 점에 대해 부리감 영 대관장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첨가하였다.

“신구약 성경을 주의깊게 읽어보면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제시는 고대 인류가 일상 생활에서 해야 했던 의무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과 물몬경에 포함된 제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며 교리와 성약에는 이 교회에 주신 직접적인 제시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의 안내자가 되므로 멀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며 또한 아무데도 쓸데 없어 그대로 버려두는 책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나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계속하여 살아가기 바라며 그의 영을 계속하여 받기 원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어둠 속을 걸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에 거하게 될 것이다.”(설교집 제10권 1863년 11월 6일 제284페이지)

사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던 비판적인 사두개인들의 부활한 상태의 결혼에 관한 질문에서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큰 의미를 전하는 답변을 하셨다. “너희가 경전도...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마태복음 22:29)

우리 모두도 경전을 알지 못하면 오해를 한다. 예언자의 글은 우리와 우리 세대에 크게 관련되어 있다. 경전이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 밑에서 쓰여졌으나 어느 시대, 어느 국가, 어느 세대 그리고 누구에게도 경전은 관계가 된다. 그러므로 경전의 모든 질문, 권고, 훈계, 지시, 계명 그리고 약속은 현대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중요성을 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어디에 있는냐”(창세기 3:9)고 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경전은 학자를 위하여 쓰여진 것도 아니고 교재로 쓰여진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라고 헝크스 장로는 말하고 있다.

에게도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신다.

경전에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관한 가르침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다. 수 많은 세대를 거쳤고 수차에 걸쳐 번역 되었으나 현대인에게는 현대적인 의미를 주고 있다.

경전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와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관계도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진리를 배우게 되면 가장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얻게 되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진능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하나님의 영감과 아내의 지도를 받는 택함 받은 예언자에 의한 복음 계획의 회복 및 그 지도적 역할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간증을 갖는 것보다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는 없는 것이다. 1832년 요셉 스미스가 하신 다음의 기록을 보자.

“—경전을 상고하라—우리가 출판하는 계시를 상고하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진리를 구하라……그렇게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은 아니며,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인간에게 의뢰하지 않게 될 것이며 공론의 여지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계시를 상고하라. 예언을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전자와 예언자를 주셨음을 기뻐하라… 또한 친애하는 지구의 거주자들이여 너 자신을 순결히 하며, 같은 영광에 이르며, 자신을 위해 돌보며, 자신을 위해 아는 것은 육체를 가진 자의 특권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교회 기록역사 제1권 제282~284 페이지)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사무엘 때부터 음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승천하실 것을 말하고 있었음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구약 시대를 통하여 이사야와 시편 및 음의 아름답고 예언적인 시현으로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영광이 충실하게 예언되어 알려졌던 것이다. 야곱은 물문경에서 “우리 이전에 살았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 역시… 그리스도를 믿어 그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하였으며……” (야곱서 4:4~5)라는 간증을 하였다.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간증의 하나는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도록한 주님의 천사에 관한 기사이다. 여기에서 빌립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알게되었다. 빌립은

성령의 안내로 내시에게 닥아가 그가 읽고 있던 것을 이해하느냐고 묻자 빌립을 청하여 성경구절의 의미를 설명해 줄 것을 청하였으니, 그 구절은 바로 “…… 저가 사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락는 자 앞에 있는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 하였도다.” (이사야 53:7, 사도행전 8:32 참조)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 행전 8:35)는 말씀이다.

이 훌륭한 경험으로 빌립의 손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으



며 삶의 새로운 방향을 잡기에 이르렀다.

바울은 디모테 사람들에게 경전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테후서 3:16)고 말하였다.

경전에서 우리는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속죄와 인간 자신의 신앙, 순종, 사랑과 의로운 인내를 통하여 다시 아버지와 함께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구가 인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과 인간은 “스스로 악의 종”이 되던지 아니면 “성령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던지”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지상에 오게 되었음을 안다.

생명은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원래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같은 구세주 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영의 아버지 즉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이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계획은 “구원의 계획”, “자비의 계획”, “행복의 계획”, 으로

계시되었다.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적 생명과 자유 의지와 “모든 것을 얻거나 모든 것을 잃을” 선택을 하여야 할 반대조건의 축복으로 받았다.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을 구세주가 임명되고 예언자가 부름을 받았다. 신성한 속성의 축복과 육체적 경험의 흐름 속에 발전의 기간을 부여 받은 인간은 만일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사업에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살려고만 한다면 무한한 가능성과 끝없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인간은 연구와 봉사과 경전을 통하여 이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배우기 위하여 지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경전과 예언자는 당신께서 지식, 영감과 질책을 주신 좌표가 된다.

경전의 신학은 느낌과 행함과 생활을 안내하는 위대한



종교적 교훈과 혼합되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모든 인간에 대한 우리의 사랑 및 우정과 직결되어 있다. 영적인 것과 도덕은 서로 통하는 것이다. 이 양자는 우리에게 무엇이 진리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만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이 진리인가를 스스로 알도록 하는 영적 증거를 얻도록 도우며 우리가 살아야 할 바대로 살도록 도와 주는 데에도 있다.

과거에 경전을 읽은 일이 있고 기쁨으로 기억하고는 있으나 경전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한 엘마의 질문은 지극히 중요하다. 자기 백성과 그 조상에게 보여 주신 주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하심으로 그들이 얻게 된 신앙과 느낌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 엘마서 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은 질문을 그들에게 하였다.

“.....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일에 익숙해지고 관심을 가지며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른 때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에 관한 기록을 읽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일상 생활에 적절하며 또 적용될 수 있는 원리와 교훈을 배우는 것이다. 믿음이 약하고 강팍했던 자녀를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현세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그 분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지식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계명의 힘이 필요하며, 그가 명하신 것을 순종하고 이행하며 그의 뜻을 이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로 원하는 바이며,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사업에 하나님과 함께 수고 하면서 그분의 영원한 반려가 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면 가져야 할 사항인 것이다.

우리가 “어려서” 선교사로 있을 때, 오년 전, 심지어는 일년 전에 복음과 경전에 관하여 공부했던 것은 충분하지 않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였듯이 “공중에는 무엇이 있다” 살아계시며, 계시를 주시고, 교통을 계속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있는 예언자가 있다. 생명은 변화와 경험과 모험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나날은 냉혹한 요구와 끝없는 기회를 주고 있다. 우리는 조금 더 오래 살아왔으며, 좀더 생각하였고 절망, 비통, 혹은 감사로 눈물을 흘렸고, 성실하게 기도하였으며, 좀더 깊이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전에 이 땅에 살으셨던 가장 사랑 받으실만 하고 가장 은혜로우며 경건하신 분과 깊은 반려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경전을 읽으므로써 그 분이 직면하셨던 문제와 수난과 시련 중에서도 보이신 인내, 용서 및 사랑을 새로이 인식하게 된다는 확신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분의 승리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비할 바 없이 큰 권능에 관한 지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크게 하고, 회개할 용기를 키우며, 성령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경전을 상고하고 이에서 얻은 행복의 계획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다는 깊은 사명감에 충만하여 세상에 나아갈 때 이들 축복은 물론 이외의 많은 축복도 우리의 것이 된다.

인간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이 임명한 대리인으로 봉사하는 사람의 지도력에, 그리고 전능하신 분의 격려를 받아 가르치고 인도하며 증거하는 사람에게 의탁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분이 행하신 것과 바라시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인간의 견해가 아닌 이 지식이 우리의 안전하고 확실한 길인 것이다.

리하이와 니파이의 시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무에 도달한 사람들은 많은 시간 동안 어두움 속을 헤맨 후 나무의 열매를 맛 보고 훌륭한 축복에 감사한 후 즉시 이것

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자녀들과 함께 나눌 생각을 하였다. 이것이 바로 경전과 복음의 정신이다. 이것은 예나 오늘이나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분투 노력해서 얻어야 할 도전의 대상인 동시에 가능성이기는 하나 경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가까이 하고 그 속에

담겨진 영원한 진리에 끊임 없이 접하여 방향을 찾고 자기를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힘과 신앙을 가질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인 동시에 도전의 대상이다. ○

경 전

나는 비록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제시된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과 교회와 우리의 친구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지극히 감사하는 바이다.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매우 많은 축복을 향유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축복을 가질 수는 있으나 가지려 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특히 유대인들에게 자기는 암탉이 병아리를 그 깃 속으로 모으려는 것과 같이 여러번 세상 사람들을 모으려 했으나 그들이 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을 살펴 보기로 하자. 현재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에게 주신 계시와 구세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 주신, 그리고 첫 한 세기 동안 그의 사도들이 준 계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계속하여 인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치시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신 많은 계시를 가지고 있다. 이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우리는 복음의 원리가 매우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물몬경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우리의 책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계시가 수록된 교리와 성약도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성실한 사람에게 성경을 읽는 외에 물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도 아울러 읽을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가! 분열되고 거기에서 세분된 소위 기독교계에서는 성경에만 하나님 모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결코 계시를 해 준 적이 없으셨다.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들이 경전이라고 즐겨 부르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말씀이나, 충고나,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임프르브먼트 이라. 제53권 제965~66 페이지

요셉 스미스의 첫 시현. 이 그림은 어린 요셉의 신앙에 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1820년 예언자에게 나타나신 아버지와 아들을 묘사하고 있다. 원래의 그림은 켈 릴레이의 작품으로 신전 광장의 방문자 센터에 걸려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르스 알. 맥콩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 여러분이 자신을 위한 계시를 최후로 받은 것이 언제 쯤 되는가? 하나님께서 영감의 영으로 계시를 주신 때는 얼마나 오래 되었으며,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아니라 신앙으로 배움을 얻은 때로부터 지금까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 다음의 것을 생각해 보자.

계시란 무엇인가?

제임스 이. 탈메지 장로는 “...계시는 하늘로부터의 교통으로 신성한 진리가 알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신앙개조 연구 296 페이지)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사가 인간에게 나타나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 때, 성령이 인간의 내부의 영혼에 진리를 알려줄 때, 하나님께서 꿈과 시현을 주실 때, 이 모든 것은 계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 능력을 통하여 지식, 학식, 지혜, 진리를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으로서는 알 수 없는 현제와 영원한 실체를 인식하게 된다.

누가 계시를 받을 수 있는가?

물론 사도와 예언자들이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통 수단은 오직 몇몇 사람에게만 열려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실로 모든 사람을 값있게 보며, 편애하시지 않는 분이며, 신성한 계시를 받을 가치가 있는, 율법을 준수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과 뜻을 밝히실 준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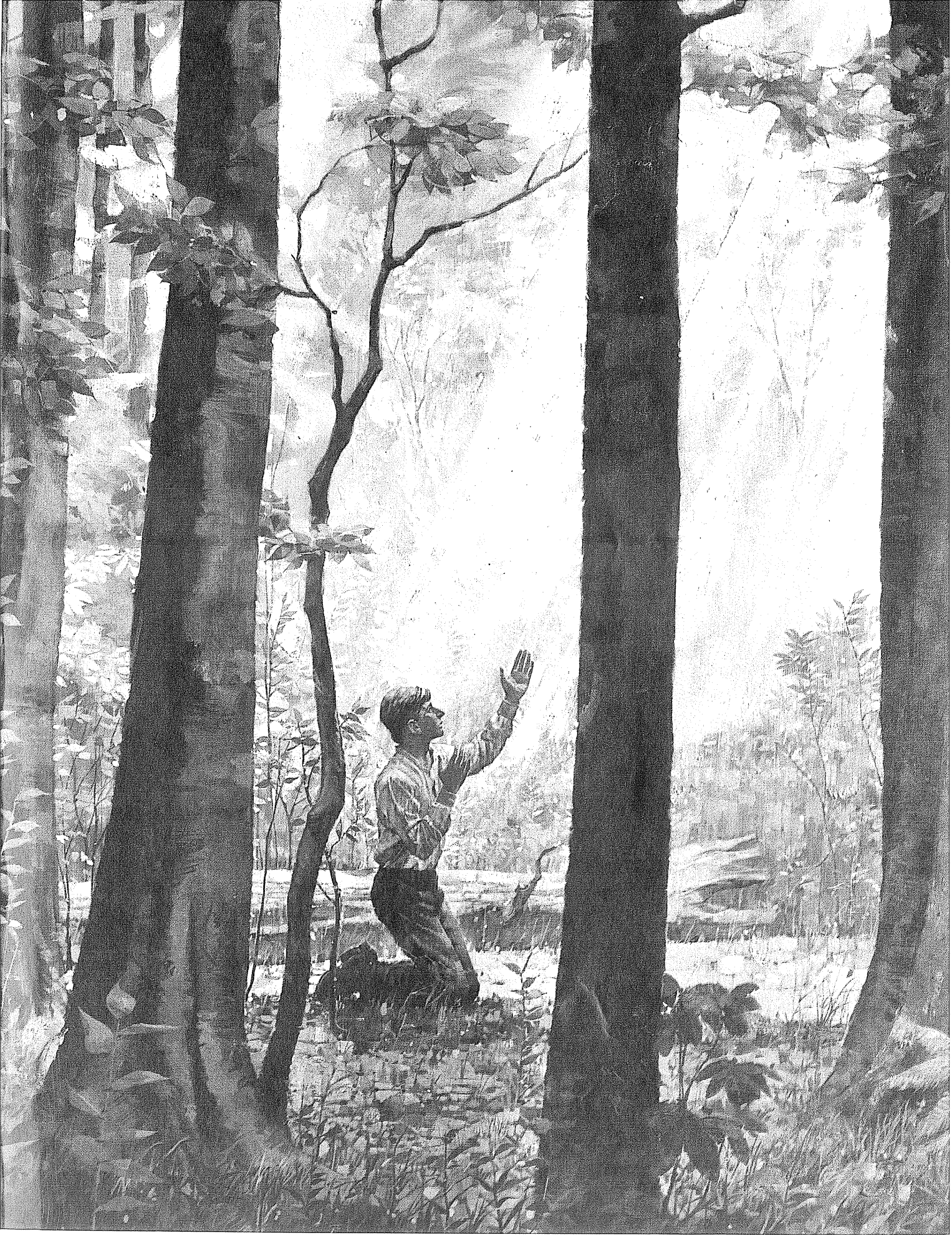
되어 있는 분이실까?

요셉 스미스는 야고보서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5)는 구절을 읽었다.

그후 성령의 안내로 현 신권시대를 시작케한 기도를 올렸던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올렸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직접 응답하셨다. 이러한 일은 누구나 요셉 스미스와 같은 신앙과 순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일까? 아니면 이것은 어느 한 경우에 한 사람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일까?

경전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씀은 어느 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와 뜻을 같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았다. 실로 아버지와 아들은 복음의 경륜의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지만 신앙이 있다고 또 필요한 경우에 누구든 지혜와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교회의 회원은 침례시에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 이것은 그들이 성실한 한 성령과 언제나 동반자가 될 수 있음



그러니 문제는 교회의 모든 회원이 계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시를 받고있느냐 하는 것이다.

을 뜻한다. 요셉 스미스는 “누구도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성령은 계시자이기 때문이다.” (요셉 필딩 스미스 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28 페이지)

교회 전반에 대한 안내와 지시에 관한 계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를 다스리도록 지명된 사람을 통해서만 내려지며 특정한 교회 조직에 대한 계시는 그 부서의 열쇠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내려 진다. 그러나 구원은 개인에 관한 문제이므로 교회의 모든 회원은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성령으로부터 영감과 안내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주는 나를 두려워 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로다.”

“또 저들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주리니, ……나의 왕국에 관한 모든 비밀을 알려주며……”

“참으로 영원히 놀라운 일도 저들이 알게 될 것이요, 장차 있을 일 곧 여러 세대의 일까지도 내가 저들에게 보여주리라.”

“그리하여 저들의 지혜는 커질 것이요, 이해력은 하늘까지 미치리라……”

“이는 나의 영으로 깨닫게 하며 나의 권능으로써 나의 뜻의 비밀을……저들에게 알려줄 것임이라.” (교리와 성약 76 : 5~10)

바로 이 원리에 관하여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는 십이사도들에게 알리고 보잘 것 없는 성도라도 듣기만

하면 곧 알게 될 것이 아니라면 아무 것도 요셉에게 계시하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제149 페이지)

그러니 문제는 교회의 모든 회원이 계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시를 받고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실 계시는 성실한 자가 필연적으로 받는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미칠 수 있는 자신의 가능의 세계에 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힘으로 말씀하신다. 그의 소리를 들으려 하는 사람은 들을 것이나 우리의 앞 길을 안내하시며 우리에게 복종을 명하실 권리를 가지신 분의 계시된 뜻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계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공부하고 기도하고 순종한다면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즉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마음 속으로 생각하며, 신앙과 정직한 마음으로 또 원하고 간구하면 답을 얻으리라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려주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보다 큰 이해력을 달라고 간구하며, 더러운 장막 안에서는 거하지 않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올바른 생활을 한다면 계시를 받게 된다.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예를 들어도 충분하겠사.

첫째, 주께서는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신앙 가운데서 구하면 무엇에 관한 지식이든지 얻게 됨은 네 하나님이요 구속주이신 주께서 살아 계신 것 같이 참으로 분명하도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보라, 나는 네게 와서 네 마음 가운데 거할 성령으로 네 정신과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이 계시의 영이니……”(교리와 성약 8 : 1~3) 카우드리 형제는 금판에 관련된 지식을 얻고자 했으나 그에게는 신앙과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므로 얻을 수가 없었다.

둘째, 니파이는 자기의 반항적인 형들이 부친 리하이의 가르침을 거스리고 있는 것을 알고, “보라, 부친은……말씀 하셨으나 이를 이해하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는 형들에게 “너희가 주께 간구하여 보았느냐?”고 반문하자

그들은 “간구하지 않았노라. 주께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십이라”, 고 대답하였다.

이에 대한 니파이의 말은 계시를 구하는 우리를 안내하여 주는 위대한 원리를 밝혀 주고 있다. “너희가 어찌하

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마음을 강박하게 먹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며, 응답되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내게 구할진대, 이러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니파이 일서 15:7~11) 결론: 계시를 받으라!

말일성도인 우리의 책임은 계시를 받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증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우리 스스로도 알아야만 할 것이다. 리하이가 시현을 보고 니파이에게 말하여 주니 니파이도 신앙으로 주께 나아가 자기에게도 시현을 보여 주시도록 구하여 같은 시현을 보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문경을 읽으면 마음 속에 그 내용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것이 사실인지를 묻는다.

제시자인 성령의 힘으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질 것이며 그뿐만이 아니라 “성신의 권세로써…온갖 진리를 알게……”(모로나이 10:5) 된다.

계시는 가득히 간직되어 있으며 그것을 받을 교통로는 세워졌다. 이미 만들어져 있다. 여러분 자신이 계시를 최후로 받은 것은 언제였는가? 하나님께서 영감의 영으로 계시를 주신 때는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연구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서 배움을 얻은 때로부터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

기 도

그 분은 그 분의 영의 권세와 존재로서 어느 곳이나 계시며 그 분의 권세와 존재와 성령은 이를 구하지 않는 인간의 자녀에게는 찾아가지 않는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으리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거할 수도 있으며 그것을 열망하여 구할 수도 있겠으나 기도를 통하여 영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것을 모두 망각하게 되는 것이니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열어야만 영혼이 감동되어 이 무한한 권능에 도달할 수 있고 이 권능을 인간이 활용하고, 도움을 얻으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건하에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힘을 모아 저항해 오는 적과 싸워야 할 위험과 변화 많은 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겠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를 원하시나 성령이 강제로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시지도 않으며, 우리가 기계이 성령을 구하려 우리의 마음을 열지도 않는 한 우리에게 강제로 성령을 인식하도록 하시거나 주시지는 않는다.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곧 들으실 수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음에 즉시 주의를 기울이시거나, 응답할 수 있는 다른 존재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시는 수단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 곳으로부터 전달되는 소식을 받을 수 있는 육체를 갖춘 도구이므로 하나님의 영 및 진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조화를 이루는 일은 기도가 맡고 있다.

마음 속에 분노가 있고 상심되는 바가 있는가? 그것이 존재하는 한 기도할 수 없다. 만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적절한 정신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일치하게되며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이는 언제나 육체적인 귀로 듣는다거나 육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니다.

멜빈 제이. 벨러드 (1923년 6월 대회)

임프르브먼트 이라. 제26권 989~991 페이지

신앙. 복음의 첫째 원리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로버트 스콧의 이 그림에 잘 나타나 있다. 원래의 그림은 로스앤젤리스 방문자 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신앙

보이드 케이. 팩커

십이사도 보조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의 오오사카란 도시는 거의 폐허가 되어 도시의 건물은 무너지고 거리는 벽돌, 파편과 포탄 구멍으로 얼룩져 있었다.

지하철만이 안전하여 점령 후 이것만이 유일한 도시의 교통수단이 되었다.

어느 아름다운 늦가을 어느날, 나는 몇몇 동료 군인과 함께 지하도의 층계를 오르고 있었다. 이 때 우리의 눈이 미치는 곳은 어느 곳이나 전쟁의 상처뿐이었다.

단풍나무가 있는 가로수로 아름다웠던 넓은 길은 절망의 파멸한 흔적만 보였다. 비록 대부분의 가로수는 폭격으로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게 되기는 하였으나 몇몇 가로수는 부러진 가지와 상처난 밑둥어리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었으며 그중 한 두 그루는 어린 가지에 초라한 나뭇잎을 내밀고 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길가의 돌에 쉬여있던 죽은 나뭇잎을 허뜨리고 있었다. 낡은 기모노를 입은 작은 소녀가 무너진 집을 오르내리며 마른 갈잎을 양철통에 담고 있었다. 이 조그만 예쁜 소녀는 자기를 위압하고 있는 파괴와 암담한 공허에 굴복하지 않고 양철통에 나뭇잎을 더 모으려고 폐허를 오르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소녀는 자기 세계에서 아름다운 요인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광경에서는 이 소녀가 바로 아름다운 요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런지 모른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소녀를 잊지 않고 있으며, 어찌서인지 그 소녀 생각올하면 내 신앙이 굳어져 가는 것만 같다.

어린이에게는 정직함과 솔직함 즉 자신을 감싸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 그들에게는 성인들이 갖기 어려운 단순하며 절대적인 신앙이 있다.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태복음 18:2~3)고 하셨다.

어린이에게는 자만과 허영이 거의 없으며 열심으로 그

리고 신뢰할 수 있게 반응한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시는데 단순한 소년을 택하셨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람 중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셉 스미스가 단지 15살이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 그대로인 것이다.

그 시현 자체보다 더욱 특기할 만한 것은 은밀한 숲에서 응답을 구하여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순진하고 확고한 신앙이었다.

신앙과 겸손은 병행하게 마련이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안될 자신을 인식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용인하는 사람은 신앙을 위한 장소를 스스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물론경에서 위대한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다. 야렛 형제는 16개의 작은 돌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는 마음 속으로 주께서 손으로 돌을 만지시면 자기들이 여행을 하는 동안 배를 비쳐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간구가 응답되어 주께서는 돌을 만지셨으며 야렛 형제는 주님의 손가락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주 앞에 엎드려 주께서는 살과 피로된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으며, 주께서는

“네가 가진 신앙으로 인하여, 장차 내가 살과 피를 갖게 될 것을 네가 보았나니, 사람이 일찌기 너만큼 두터운 신앙으로 내 앞에 나아 온 일이 없었으며, 그러한 신앙이 없었다면 네가 나의 손가락을 보지 못하였으리라. 네가 이제 손가락 이외에 무엇을 더 보았느냐?”

이에 대한 대답은 특기할 만하게 대답하였다. “아니오이다. 주여 당신을 내게 보이시옵소서.”(이더서 3:9~10)

주님의 말씀에서 미래의 의미를 가진 말올택하신 것은 신앙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주께서 “너는 내가 이를 말을 믿겠느냐?”(이더서 3:11)고 물으셨을 때 이에 신앙을 시험하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이른 말을 너는 믿느냐?”고 묻지 않으신 것은



THE
BIBLE

흥미있는 일이 아닌가? 과거의 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고 미래의 것을 언급한 것이다. 즉 야벳 형제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것에 자신을 맡기라는 말씀을 들었으며 주께서 아직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해야 했던 것이다.

실로 우리 중에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니, 이는 앞으로 할 말을 철저하게 믿으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방법으로 자신을 맡기기에는 신앙을 요하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야벳 형제를 시험하기 위하여 “너는 내가 이를 믿을 믿겠느냐?”고 하셨으며, 야벳 형제는 “그러하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줄 제가 아는 것은, 당신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거짓말을 하시

예언자 엘마는

“우리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 준다면 우리가 확실히 알아 믿으리라고 말하는 자가 많으니라.

“내가 묻노니, 이것을 신앙이라 하겠느냐?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아니라.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으면 믿을 필요가 없으리니...”

“신앙에 대하여 이미 말했거니와, 신앙이란 사물을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 (엘마서 32:17~18.21)

신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모든 사람의 생활에 보통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경험에 의하여 얻게 된 신앙이다. 즉 새날이 밝아 오리라는 것, 봄이 오리라는 것, 성장하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것으로 계획된 것에 대한 확신과 관련되는 신앙이다. 이러한 종류의 신앙은 어린 일본 소녀에게서도 잘 나타나 있었다.

실로 혼하지는 않으나 위에서 말한 것과 다른 신앙이 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신앙이다. 이것이야말로 합당하며, 준비되고, 고통할 줄 모르는 신앙이며, 신앙이 아니라면 존재할 수 없는 것도 아 신앙으로는 존재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신앙이다. 이것은 때때로 사물도 움직이는 신앙이다. 이것을 소유한 사람은 혼하지 않다. 이것은 서서히 성장하며, 놀랍고도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힘이며, 전력과 같이 보이지는 않으나 실재하는 힘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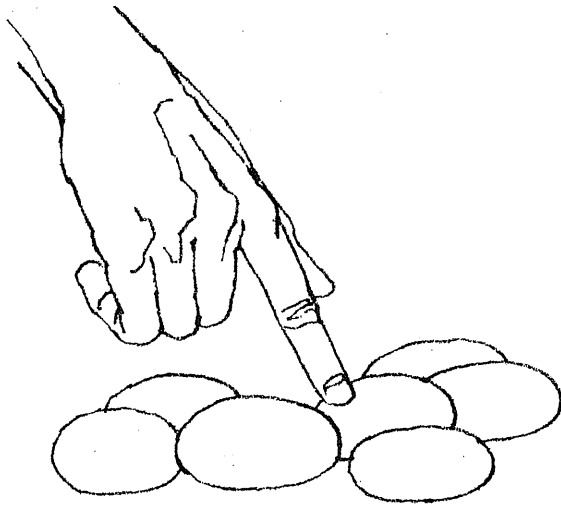
그러나 신앙은 신앙이어야 한다. 어느사람이 신앙을 “시험”한 일이 있다. 그는 어느 사건이 꼭 일어나리라고 확신한다는 말을 하였으나 그가 바라던 것은 성취되지 않았다. 자기가 바라던 일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그는 신랄하게 “그러면 그렇지, 일어나지 않았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거든”이라고 말하였다.

회의와 의문으로 채워진 세상에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시작해서 “네가 보여 주면 내가 믿겠다”는 태도로 발전한다. 우리는 우선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증명을 해 주기 바란다고 주장하며 신앙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좀 다른 방법 즉 먼저 믿어야 알게 된다는 것을 언제나 배우게 될 것인가? 영적 믿음은 영적 지식에 선행한다. 우리가 볼 수는 없으나 진리인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게 마련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결코 실망하지 말라...내가 노바스코티어의 가장 깊은 심연으로 빠지고 록키 산맥이 내 위를 덮는다 하여도, ... 나는 의지하고, 신앙을 단련하며 용기를 잃지 않으리니 내가 꼭대기로 오를 것이기 때문이라...” (조지 에이. 스미스 저



지 아니하심이니이다.”(이더서 3:12)고 대답하였다. 주께서 어떠한 말을 하던지 야벳 형제가 믿으리라는 것을 아신 주께서는 자신을 그에게 보여 주셨다. 야벳 형제는 실제로 보았으며 이제 그것을 알고 있으니 경전에 기록된 바 “이제 이 사람은 저가 지닌 지식으로 인하여 장막에 가려지거나 바라봄이 금지될 수 없었고 저가 예수의 손가락을 보았으며 이를 보았을 때 두려움을 느꼈으니, 이는 저가 본 것이 주의 손가락인 줄을 알았음이라. 이같이 저는 신앙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의심없이 분명히 알았더라.” (이더서 3:19)

신앙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것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신앙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증거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신앙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미지의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신앙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빛으로 무장한 몸으로 암흑으로도 몇 걸음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만일 모든 것이 알려지고, 모든 것이 확실해 지며, 모든 것이 설명되면 신앙이 불필요해지는 것이다. 실로 신앙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조지 에이. 스미스의 회고 81~82(페이지)

신앙은 커질 수 있다. 우리 앞에서 비치는 빛과 같이 우리에게서부터 발사되어 나간다. 때때로 짙은 안개와 먼지에 싸여 있는 것과 같은 의심이 우리를 온통 감싸고 있기 때문에 가장 투사력이 강하고 지속적인 신앙만이 이를

통하여 빛을 발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신앙을 단련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니파이와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에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영에 이끌려 나아갔느니라.”(니파이 일서 4:6)

신 앙

삶에 신앙을 갖고 삶의 목적을 가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생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라. 하루 하루를 현명하고 보람있게 살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이시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라.

복음 저자의 기록과 같이 그분이 베들레헴의 아기시라는 신앙을 가지라.

예수는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와 구원의 창조자시라는 신앙을 가지라.

그분의 구원의 계획, 승영 및 영광의 계획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

인간의 영혼을 무덤으로부터 이끌어 내기 위하여 보상 없는 속죄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유례가 없는 사랑에 대하여 신앙을 가지라.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을 제외 하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

그는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셨으며, 현재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

그분의 부활로 죽음의 속박을 깨뜨렸으며, 육체의 부활이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

마지막 이 경륜의 시대의 첫 시현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으며 그에게 몸을 보이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

요셉 스미스는 참된 하나님의 예언자 이라는 것과 때가 충만한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시작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

주께서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 왕국에 대하여 신앙을 가지라.

계속되는 계시에 대하여 믿는 신앙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 하나님께서

는 아직도 자신의 사업과 왕국에 관하여 계시하실 많은 위대하고 중요한 사항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신앙을 가지라.

“이는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 임이라.”(교리와 성약 84:36)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신권 권능에 대하여 신앙을 가지라.

하나님의 능력과 병고치는 은사 및 기적의 은사에 대하여 신앙을 가지라.

성경이 바르게 번역된 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

물론경 및 물론경에 기록된 영감적인 진리와 신앙의 기록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

우리의 시대에 적절한 원리와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는 교리와 성약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

값진 진주에 대하여 믿는 신앙을 가지며, 그 책에 포함된 믿는 자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율법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 위대한 모세의 귀중한 가르침과 그가 전하여 주는 지식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

여러분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며, 그 자녀일 뿐 아니라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 믿는 신앙을 가지라.

교회의 대관장일뿐 아니라 예언자이며 선견자 이고,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계시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데이비드 오. 벅케이 대관장님에 대하여 믿는 신앙을 가지라.

높은 부름과 위치에 있는 그를 지지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신앙을 가지라.

겸손하고 믿으며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앙을 가지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원리와 의식에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데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고, 진실하며, 순결하고, 자비로우며, 유덕하고, 선행을 해야 한다는 신앙을 가지라. 끝까지 의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라.

델버트 엘. 스타플리

임프르브먼트 이라. 제3권 420~421 페이지

회개. 복음의 둘째 원리가 로버트 스웬 프의 이 그림에 묘사되어 있다. 다른 “첫 원리”의 그림과 함께 방문자 센터의 “생의 목적”방에 비치되어 있다.

회개

에이. 데오도르 터틀

칠십인 제일 정월회

● 사랑스럽고 형식을 갖춘 주요 행사에서,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본 꿈을 꾸어 본 일이 있는가? 식전에 들어가기 전, 어떻게 해서인지 진창에 빠지고 옷이 찢겨 더럽혀지고 추해졌기 때문에 옷을 깨끗이하고 기우며 자신을 남에게 보일 수 있을 만큼 차리려고 정신 없이 열을 내지는 않았는가? 그곳을 떠나거나 사라지거나, 혹은 숨기라도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은 하였어도 늘 그곳에만 머물러 있게 되지 않았는가? 그러던중 그것이 단지 꿈에 불과 했었다는것을 알고서는 깨어서 해방감에 젖어 감사의 한숨을 돌리며 경험한 굴욕과 수치의 망상을 지워버리고 이러한 꿈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라던 일은 없었는가?

이와 같은 꿈은 우리에게 복음의 가장 훌륭한 원리 중의 하나인 회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준다.

회개는 온 우주의 필요에 답한다. 만일 이 영광스러운 원리가 없다면 현세와 내세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인 여전하에서 살게 될 것인가?

데이비드 오. 벅케이 대관장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와 의식은 인류의 발전, 행복 및 영생에 충분하며 크게 공헌하는 것이지만 인간 가족의 구원에 성스럽고 영원히 작용하는 원리인 회개와 같이 필수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회개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으며 회개가 없이는 누구도 발전조차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이며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원리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비유하여 이야기 한다면 더욱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회개는 비누와 같다. 즉 그것은 생명의 비누인 것이다. 비누와 같이 회개는 생명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므로 가능하다면 자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마음에 간직하여야 할 것은 철저하게 닦아내지 못하거나 마음이 완전히 내키지 않으면서

그저 반쯤의 노력으로 잘 못 사용하게 되면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눈에 띄게 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절히 사용한다면 생명의 비누는 철저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영구히 더러운 때를 씻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는 생명에 변화를 주며 의의 일로 인도하는 경건한 비통함이다. 브루스 알·벅콩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회개란 죄로 더럽혀지고 얼룩진 인간의 영혼이 죄의 짐을 벗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 조금도 죄없이 그 굴레를 벗어나도록 하는 과정인 것이다.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얻으려면 죄를 인식하고 죄를 지었음에 깊이 비통하며 상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회개하는 사람은 죄의 짐을 벗어나기 원해야 하며 자신의 잘못을 버리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고 기꺼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자기에 대한 다른 사람의 과오를 용서하여 주어야 한다. 그는 침례의 물과 성령의 안수를 통해 서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속죄의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용납해야 한다”. (브루스 알. 벅콩키 저. 물몬 교리. 630 페이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자기의 자녀를 이곳에 놓으실 때, 먼저 자녀들이 움직여서 행동하도록 하는 신앙을 주셨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갖고 우주의 규칙 속에 존재하는 인간이 만사를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행동의 동기가 되는 힘인 인간의 신앙은 잘못을 범하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악한 일까지도 범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인간이 발전하려면 두번째 우주의 율법인 회개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태초부터 복음은 회개의 복음이라고 불리어 왔다. 그것은 아담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졌고 모든 경륜의 시대에도

의 영광 곧 공의로우시며 참되신 이의 영광을 더욱 더 알게 되리니

“너희가 서로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며, 남에게 흠족하도록 내어 줄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녀를 험뻑고 굶주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어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죄의 주인이요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신 악령인 악마를 섬기지 아니하리니, 그는 모든 의의 적이라.

너희는 다만 저들에게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

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기를 가르치라” (모사이야서 4 : 11~15)

어느날이고 우리는(꿈이 아니라)실제로)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때에 우리는 더럽고 불결하며 추한 상태로 서든지 아니면 생명의 비누를 사용하여 청결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깨끗하고 순결하며 용서받는 상태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다음에 비누를 사용하게 되면 생활의 비누인 우주의 율법, 즉 회개로 여러분 영을 깨끗하게 하는데에 사용하기 바란다. ○

회 개

●회개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결코 가벼히 넘길 것이 아니다. 매일 잘못하며 매일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견지에서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우리는 말일 성도로서 적절히 회개할 수 있는 적절한 때는 하루의 저녁일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

회개를 미루지 말라. 입증 시에 하는 회개는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니 인간은 건강하고, 힘이 있으며 육체와 정신에 정력이 있을 때 회개하고 주를 섬기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 속에 회개의 정신을 일깨워 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에게 용납될 때 아직 남은 우리의 생명을 주 섬기기에 돌려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정신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왕국의 모든 율법이 성취되고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 날이 오기를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교회는 죄인을 용납하는데 이는 죄를 조장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준 친절로써 회개하고 모든 불의로부터 성스럽고 깨끗하게 자신을 지키고자 할 때 용납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여야 할 것인가? 회개는 하늘로부터 온 권능으로 우리에게 부과된 독단적인 율법을 어긴 결과 오는 것일까? 왜 주께서는 욥에게 다음과 같이 물으셨을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찌니라” 다음의 물음은 얼마나 의미 심장한 것인가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어느나,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욥기 38 : 4~6)

욥이 전세에 존재하지 않았었으며, 생명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수립되지 않았었다면 주께서 욥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가?

회개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율법을 어김으로써 오는 결과이다. 어기면 회개해야 하는 이 율법은 우리가 이미 하늘에서 순종하기로 약속한 것이며 이렇게 순종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상에 와서 육체를 받고 그 육체라는 존재로서 일하므로써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더 높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헨리 디. 모일(1955년 4월 대회)

임프르브먼트 이라. 제58권 419페이지

침례. 저 자유함을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는 복음 의식의 중요한 한가지로 로버트 스펜드의 그림에 잘 묘사되어 있다.

침례

폴 에이취. 던

철심인 제일 청원회 회장

● 로마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한은 우리에게 침례의 원리를 통찰할 수 있는 큰 힘을 주고 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로마서 6:4~5)

침례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제신 영적인 단체의 회원으로 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로 약속할 때 그리스도와 성약하는 증거이다. 엘마 일세는 침례를 아버지께 복종하겠다는 약속으로 이해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너희가 마음으로 이같이 원할진대, 주가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주를 받들어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음에 꺼릴 바가 있겠느냐?”(모사이사서 18:10)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침례는 영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며, 하늘 왕국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단인 것이다. 항상 침례에 선행되어야 하는 신앙 및 회개와 침례를 집행하는 신권과 더불어, 침례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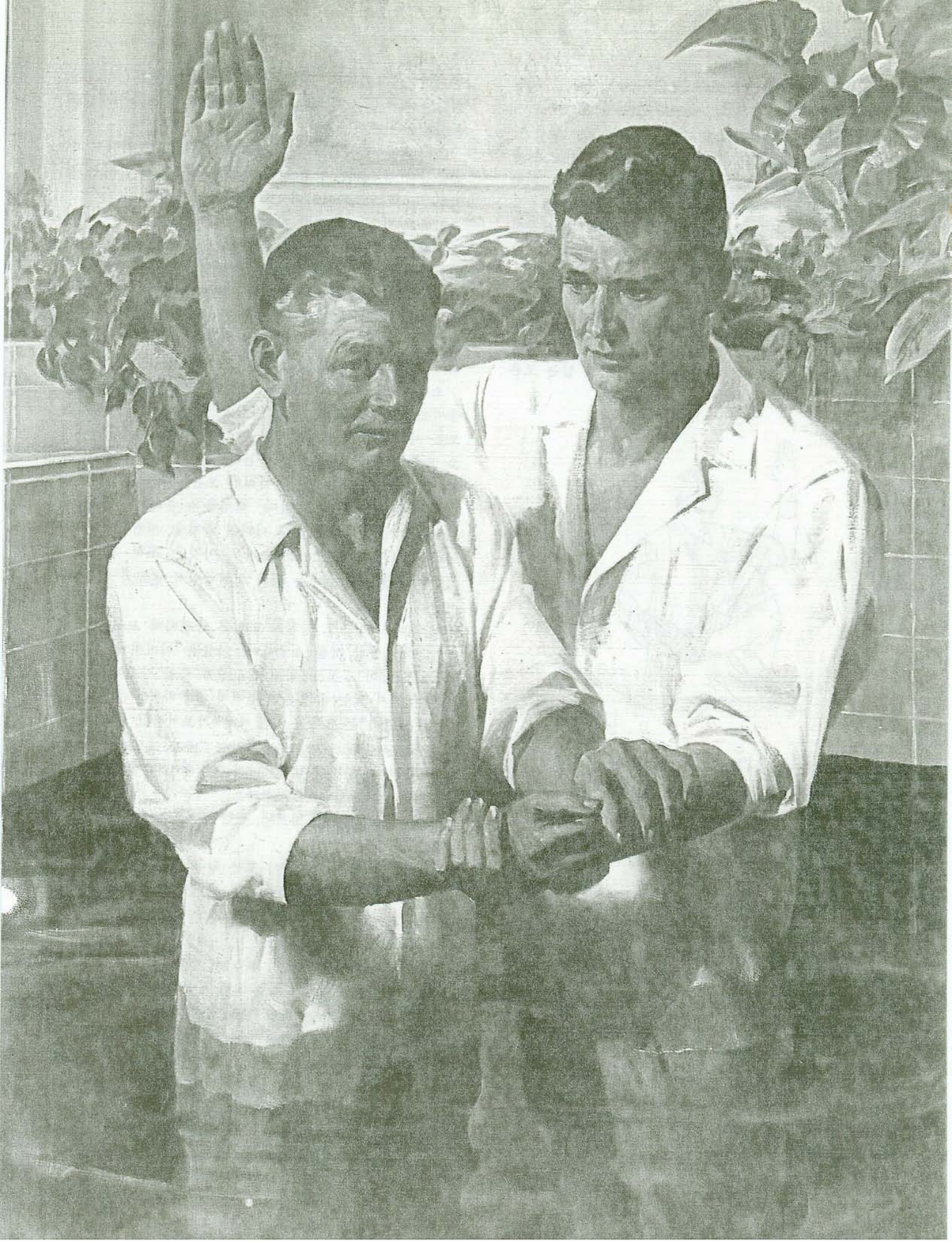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유대인의 관원”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간단한 말씀에서 구세주께서는 침례의 의미, 형식, 목적 및 필요성을 밝혀 주신 것이다. 침례의 원리에 대한 의미를 좀더 설명하기 위하여 구세주의 제학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침례는 변화, 다시 새로이 됨, 다시 태어남, 과거를 장사지냄을 뜻하며, 앞으로는 의로운 가운데에 살겠다는 욕망과 의지의 표현이다.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가 선택하여야 하는 인간은 과오를 범하는 피조물인 것이다. 이러한 과오의 결과는 현세에서의 참된 기쁨을 빼앗아 가며 내세에서의 축복을 말소시킨다. 그러나 침례를 통하여 과거의 과오가 씻어지고 문자 그대로 다시 태어남을 우리는 경험했던 것이다.

자연의 모든 것에 대하여서도 주께서는 다시 태어나는 시기를 주셨다. 나는 때때로 가을에 나무에서 떨어진 가랑잎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바로 이 나무가 다음 봄에는 새로운 잎을 수없이 내 놓을 수 있는지 골똘히 생각해 본 일이 있다. 이렇게 되면 보기 흉한 상처와 오점은 모두 덮혀지고 새로운 생명이 온 누리를 덮게 되는 것이다.

매장과 재생의 원리는 우리 사회의 여러 면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쉬운 예를 사업계에서 찾아 보기로 하자. 자기의 손실과 실패를 망각하지 않은채 현재와 미래를 설



계하는 사업가는 조만간 용기와 신앙을 잃게 된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은 그의 신앙과 열성을 소멸시키게 된다. 불경기를 당하여 하룻밤 사이 재산을 모두 잃는 이 원리가 작용함을 알게 될 것이다. 과거를 매장하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실패에 대한 기억 때문에 식욕과 수면을 잃고 종말에 가서는 건강을 해치고 그가 사는 지구는 지옥과 같이 될 것이다. 성공하는 기업가란 과거의 잘못과 실패를 묻고 내일의 희망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 새로운 발견을 하고 과거의 잘못을 고쳐 나가는 중에는 특별한 결의를 느끼게 된다. 헨리 포드의 다음 경험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의 사업이 가장 번영하던 때 친구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물었다. “포드씨, 만일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당신의 노력의 댓가를 갑자기 잃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드는 답변을 조금도 생각지 않고 즉시 눈에 빛을 내고 주먹을 쥐어 결의를 나타내어 보이면서 “나에게 십년만 준다면 모든 것을 원상대로 쌓을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정신이 있다고 본다.

주님의 다음 말씀은 아주 여러번 예루사렘의 거리에 울려 퍼졌다. “어서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환언하면 과거를 그 모든 죄와 과오와 결점과 함께 매장하고 새로운 삶을 세우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생활 방법대로 우리의 생활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침례의식을 통하므로써 되는 것이다. 침례에 따른 변화는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것은 보통으로 침례의 의식 및 기능적인 행사에 동반된다기 보다는 그것이 있는 후에 나타난다. 니파이는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은 회개와 물의 침례라. 그 후에 불과 성신으로 죄 사함을 얻을 것이요.”(니파이이서 31:17)

물문은 실질적인 집행에 따른 축복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게 밝혀 주고 있다. “회개의 첫 열매는 침례요, 침례는 계명을 이루는 신앙으로 이루어 지나니, 계명을 이룸으로써 사함을 얻으며,

“죄 사함을 받은 뒤에는 온유하며 마음이 낮아져서 이 온유함과 겸손해진 마음으로 인하여 성신이 임하시는 것이다.....”(모로나이서 8:25~28)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 침례 의식의 중요성을 새겨 주시게 위하여 예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셨다. 구세주께서 죄 없으심을 안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말하였으며 예수께서는 이에 대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대답하셨다. (마태복음 3:13~15)

오손 에프. 휘트니 장노는 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흥미있는 기사를 남겼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의 침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충분하여 온 인류의 필요를 충족하므로 모든 사람이 다 침례를 받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 싶다. 백성들은 나라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왕은 그 나라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백성보다는 왕이 치외법권적 존재가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리스도 왕국의 율법은 공평하여 모든 사람에게 같이 부종할 것을 요구한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것 외에는 어느 것도 하지 않으시며 주님 자신이 기꺼이 따르려 하지 않는 율법은 인간에게 요구하지도 않으신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던 때에 부르짖던 구호와 같았었다. 주님께서 “내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복수인 “우리가”라고 말씀하셨다.

니파이는 구세주의 침례에 관한 시현을 보고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양이 모든 의를 이루시려 함에, 물로 침례 받음이 필요한 일일진대, 하물며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아야 함이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묻고자 하노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하여 모든 의를 다 이루셨느냐?”

“너희는 그가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는 거룩하였으나 육체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세상에 보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 순종함을 아버지께 증거하여 보이려 함이니,”(니파이이서 31:5~7)

그러니 침례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 원하며 그의 참 제자가 되려고 애써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증거

침례는 변화, 다시 새로이 됨, 다시 태어남, 과거를 장사지냄을 뜻하며 앞으로는 의로운 가운데에 살겠다는 욕망과 의지의 표현이다.

하는 것이다.

물몬의 물가에서 엘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
결음을 받으며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 당한 자를 위로
하며, 너희가 죽도록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헤아림을 받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법사에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할진
대, ” (모사이사서 18 : 8~9)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께서는

“...곧 하나님앞에 겸손하고 마음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저 원하며,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와 진실로
자신의 죄를 모두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
며, 참으로 끝까지 섬길 결심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영
을 받아 죄 사함 얻은 것을 행위로써 나타내는 자에게 모
두 침례를 베풀어 교회에 받아 들여야 하느니라.”(교리와
성약 20 : 37)

수 세대에 걸쳐 제시된 침례의 책임을 이해하고 그 원
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은 영생을 상속받는 자가 되
는 것이다. 침례는 결코 가벼이 보아 넘겨서는 안 될 신성
한 의식이다.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나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회개하려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하여 있는 의식이다.

과거에는 물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취하는 적절한 침례 방법은 침수인 것이다. 만일 침수에 의
한 침례가 아니었다면 바울은 침례의 침수와 부활을 비유
하지 않았을 것이며 (로마서 6 : 3~5, 골로새서 2 : 12참조)
침례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횡단한 흔적을 비유할
유사점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고린도 전서 10 : 1~2)

신약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을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
시고는 “물에서 올라 오실까...”(마태복음 3 : 16)라고 하였
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이 많
음이라...”(요한복음 3 : 23) 물몬경에서는 구세주께서 “이
같이 하고 나서 너희가 침례하는 자를 물 속에 잠기게 하였
다가 다시 물 위로 들어올릴지니, 이 같이 하여 나의 이름
으로 침례하라...”(니파이 삼서 11 : 26~27)고 말씀하셨다.
침례라는 말 자체는 침수를 의미하며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및 부활을 상징한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
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
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

게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골로새서 2 : 12) 하나님으로
부터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침례를 줄 수 있다. 고대 사도
들도 이 권능을 부여 받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마태복음
28 : 19)라는 명을 받았다. 이러한 권능은 초대 교회에서
다른 역원에게도 부여되었으며 그들도 개종자를 침례하였
던 것이다.

배도의 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침례하고 자기 무리에 포함시켰던 것이
다. 그들은 “이 존귀(신권)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
고 오직 이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히브리서 5 : 4)는 구절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확실히 그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의식을 집행하는
권리를 인간이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하였다. -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능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전
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에게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인간의 책임인 것이다.

1829년 5월 15일 침례를 베풀 수 있는 권능이 지상에 회
복되었다.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물몬경을 번
역하는 동안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침례에 관한 구절을 접
하게 되었다. 구절의 내용이 그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
으므로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하모니 숲으로 들어가 침례
에 관해 기도도 묻기도 하였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침
례 요한이 나타나 그들에게 아론 신권을 주었으며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아의 이름
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이 신권은 또 다시 레위의 자손들의 이
롭게 제물을 주께 바칠때까지 결코 세상에서 없어지지 아
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3편)고 하였다. 이런 일이 있으
니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과 올리버 카우드리는 서로 침
례를 주었다. 다시 신성한 침례 의식이 인간의 구원을 위
해 지상에 마지막으로 회복된 것이다.

과거에도 외친 바 있던 이 근본적인 침례 원리는 현재에
도 변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말
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장로들은 초대 교회에서 사
용되던 것과 거의 같은 말로 권한을 위임 받았다. “은 세
상에 나가 내가 너희에게 준 권능을 행사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생명을 가진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리와 성약 68 : 8) ○

성령의 은사

에스. 딜워스 영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

● 금식 주일의 모임이 있던 날 회중 앞 의자에 한 어린이가 앉자 남자들 둘, 셋, 혹은 네 사람이 천천히 소년을 둘러 싸고는 자기들의 손을 어린이 머리 위에 얹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노소를 불문하고 침례 받은 모든 사람은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다. 기도문은 간단하면서도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대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 됨을 확인하노라. 또 그대에게 말하노니 성신을 받으시라” 이 다음에 계속되는 축복의 기도는 이 의식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나 또한 중요한 것이다. 신권에 의한 축복은 언제나 중요한 것이다.

이 의식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는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만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과 어떻게 하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본질적으로 가치있는 이 은혜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받는 당시 전혀 새로운 느낌을 얻지 못한다. 만일 그들이 은혜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면 실망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마음 속에 성령에 관한 지식은 그리스도의 침례와 더불어 싹트기 시작한다. 성경의 표현은 매우 모호해서 이 경우에 성령의 나타나심을 새의 형태

(비둘기)로 표현하였다. 이것을 필두로 해서 성령이 언급된 사실은 여러번 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요한 복음 3:3~5),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사도들에게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요한 복음 14:26),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확인하여 주시었고(요한 복음 20:22), 성령이 불의 혀 같이 나타나 사도들이 방언과 예언을 하도록 하였고(사도행전 7:55), 성령이 빌립을 안내하여 데려갔다는 것(사도행전 8:29, 39)을 경전에서 읽을 수 있다.

이 많은 이야기의 공통 요소는 성령이라는 것은 알 수 있으나 이 선물이 여러 경우에 어떻게 작용하게 되는가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우리 시대에 주께서 주신 계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육체적 본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셨다.

“아버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나니, 아들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성령은 살과 뼈의 몸이 없으시고 다만 영적존재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30:22)

차이점의 하나는 육체라는 데에 있다. 신회의 속한 북



적, 권능, 영광은 모든 점에서 하나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고 있다. 비록, 해의 영광과 부활한 육체가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하여도 살과 뼈로 된 육체가 있으리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영이 지닌 “사람의 형상”을 마음 속에 그리기란 그리 용이하지 않다. 우리는 형상은 특별한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어떻게 마음 속에 그려진 사람 형상을 한 영이 우리 속에 거하며, 우리를 채우며, 우리를 뜨겁게 하며, 그리스도를 증거 할 수 있겠는가? 성령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온전히 성령과 조화를 이룰 때 이 모든 것을 행한다.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 진다면



어떻게 성령은 일시에 “우리 모두에게” 거할 수 있겠는가? 성령도 영체이므로 거하게 된다면 한 번에 한 사람에게만 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에게는 큰 권능이 있어서 이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며, 이 능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는 것이며 받게 되는 것이다.

성령은 일시에도 많은 곳에 많은 방언으로 모든 진리를 보낼 수 있다. 성령을 통하여 우주의 진리(교리와 성약 76편에 기록된 요셉 스미스의 시현이 입증함)를 받을 수도 있으며 개인적인 일, 즉 자기만이 알고 처리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영감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로서는 그분이 성령, 즉 성신이시며, 위대한 신뢰를 구성하는 세 분 중의 한 분이심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모세서에서는 어떻게 아담이 “주의 영으로 불들려 물속으로 이끌려 내려가 물 속에 눕혔다가 물 밖으로 끌어 내심을 받았는가” 하는 기사를 읽을 수 있다.

“그는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너는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았도다. 이것이 이제부터 영원히 이르기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증거니라.” (모세서 6 : 64, 66)는

말씀도 들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 아들 중의 하나임을 밝히시고 “이 같이 모든 인간은 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니라.” (모세 서 6 : 68)고 하셨다.

그 날 주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도 보았다. “이에 주 하나님께서 성신으로써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지 불러 명하시되, 회개 하라” (모세서 5 : 14)고 하셨다.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성령에 의하여 증거가 세워져야 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주께서는 스스로 인간에게 나타나서 직접 가르쳐 주시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러한 수단으로 복음을 계속하여 가르쳐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까지도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가르치시고 계시다.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요셉 스미스에게 말씀 하셨으며 아들은 모로나이,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일라이어스 및 다른 제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나 교리에 관한 것은 예언자에게 “속삭이는” 성령에 의하여 계시된다. 말과 이 성령으로 예언자의 마음 속에는 말과 생각이 나타나게 되며 예언자는 이것은 자신의 언어로 소화해서 가르친다.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는 고대 바울이 이미 설명했다. (고린도 전서 12~13장 참조)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현대에 얻은 가르침을 보면 다음과 같다. 어떤이에게는 성신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은사를, 다른 이에게는 저들의 말을 믿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책임이 서로 다름을 알게 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여러가지 작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게 하는 은사를, 많은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병나음을 얻는 은사를, 병고치는 신앙 갖는 은사를,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예언의 은사를,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방언을 통번하는 은사를, 방언을 하는 은사를 주신다. (교리와 성약 46편 참조) 이 마지막 말씀으로서 성령의 은사는 누구에게나 내릴수 있는 것이나 신앙심있는 사람에게만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두는 성령으로 내려지며 규제되는 것이다.

1839년의 어느날 당시 미국 대통령은 요셉 스미스에게 이 교회와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교회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물었으며 요셉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침례의 형식을 갖고 안수에 의해 성신의 은사를 내리는 데에서 그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가 되는 점은 성령의 은사에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교회 기록역사 제4권 42페이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 교회의 회원은 성령으로 인도되는데 반하여 다른 교회의 회원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이것이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르침이다.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 (요셉 스미스 2: 19)고 하시며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소년 예언자에게 밝히신 이 말씀이 더욱 그들에게 공포를 주는 말씀인 것이다.

우리는 회원이 아니라도 진리를 알고자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증거함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경 모르나 이서 제10장에서 모르나이는 이 점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거부할 때에도 그렇게 계속하지는 않는 것이다. 성령의 목적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승영하신 살과 뼈의 몸을 갖고 계시다는 것, 아들은 세상을 창조하고 그 구세주와 구속주가 되라는 명을 받으셨다는 것, 아들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승영하셔서 왕 중 왕이며, 그의 주로서 하나님의 바른쪽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교회와 왕국을 지상에 여러번 세우셨으나 사람들을 주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사탄에게 인간을 유혹할 자유를 주셨다는 것, 그리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예언된 복된년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 시켰다는 것이다. 성령은 이것에 대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의 마음에 증거하신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진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에게 진리를 나타내 주시며, 복음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인도하고,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한다.

이 위대한 은사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자신의 일상 생활에서 재정적, 사회적, 종교적인 일은 물론 사업상의 문제에도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만일 그가 의롭다면 진리의 영은 그의 의로움 가운데서 그를 안내 할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의 회원은 영광스러운 계시를 받는 것이다.

성령은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선택하고, 경제적 활동을 택하는데에 있어서 또는 가족 관계를 이루는 데에 있어서 바른 과정을 밟도록 이끌어 준다. 그들은 재난으로 향하고 있다는 경고를 받고 이를 깨달아 자신이 넘어질 위험에 들지 않도록 예비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신권의 축복으로서 병자가 병 나음을 얻는 것을 보았고, 비통과 죽음이 있는 시간에도 위로와 희망을 가져다 주는 사랑에 찬 성령은 빛으로 밝게 비추주더라는 사실을 보았다. 신앙있는 자의 마음이 진리의 계시로 감동되어 영원한 신비의 눈을 뜨게 되었으니 현재의 진리만이 아니고 앞으로 밝혀질 진리에 대해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실로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이끌 보혜사를 보내라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인 것이다.

우리가 성신과 성신이 천국 회의에서 차지한 위대한 위치를 알 뿐 아니라 그에게서는 여러가지 은사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글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경우는 각각 성령이 다르게 역사하셨던 경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브리감 영 대관장의 경고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그가 염려하여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서 계시로써 사람들을 인도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계시의 영이 그들의 일상생활의 파업에 명확히 나타나 자신을 스스로 안



내할 수 있도록 생활하라고 가르친다. 이 계시를 받으면 사람들은 글쓰는 사람의 책상 위에 놓인 백지와 같아서 글쓰는 사람이 어떠한 표를 하든지 감수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는 것 처럼 순결하고 깨끗해야 한다. 말일성도가 욕심에 차고 세상적인 일에 질투를 느끼고 있다면 계시라는 펜으로 글이 쓰여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람이 이 계시의 영과 늘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생활한다면 그들은 자기 본분을 지키며 생활하는 것이겠고 이 규칙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본분을 지키지도 못하고 특권도 누리지 못하며 생활하는 것이라 하겠다. 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특권에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바이다. 아멘” (설교집 제2권 1866년 6월 3일 240~41 페이지)

브리감 영 대관장이 요셉 스미스를 방문했던 꿈에서 예언자 요셉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다.

“요셉께서는 내게로 다가 와서 매우 진지하면서도 즐거운 표정으로 바라 보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도록 하며 주님의 영을 틀림

없이 간직하게 하여 영이 그들을 옳은 곳으로 안내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여 작은 목소리를 흘려 버리지 않도록 하면 성령은 그들이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실 것이고 왕국의 열매를 맺도록 할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마음을 열어 확신을 얻도록 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올 때에는 받을 준비를 갖추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과 다른 모든 영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주님의 영은 인간의 영에 화평과 기쁨을 속삭여 줄 것이며 그 마음으로부터 적의, 질투, 분열 및 모든 악을 제거하게 될 것이니 그들이 바라는 것은 모두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여 하나님 왕국을 세우려는데에 있을 것입니다. 만일 형제들이 주님의 영을 따르다면 그들은 옳은 길을 가리라는 것을 말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영을 간직하라고 하시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자기들이 이 세

상에 오기전 하늘 아버지가 지어주신 바로 그때의 자기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두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 가족을 조직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해체 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요셉께서는 나에게 태초에 존재하던 그들의 원형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기록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것이 결합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았다. 요셉은 다시 이르기를,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을 틀림없이 간직하고 그 영을 따르면 영은 그들을 오직 바른 길로만 가도록 인도할 것임을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가지 예로 말일성도가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 하였을 것이다. ○

●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조)

“아버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나니, 아들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성령은 살과 뼈의 몸이 없으시고 다만 영적 존재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으리라.”(교리와 성약 130 : 22)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 : 1~4)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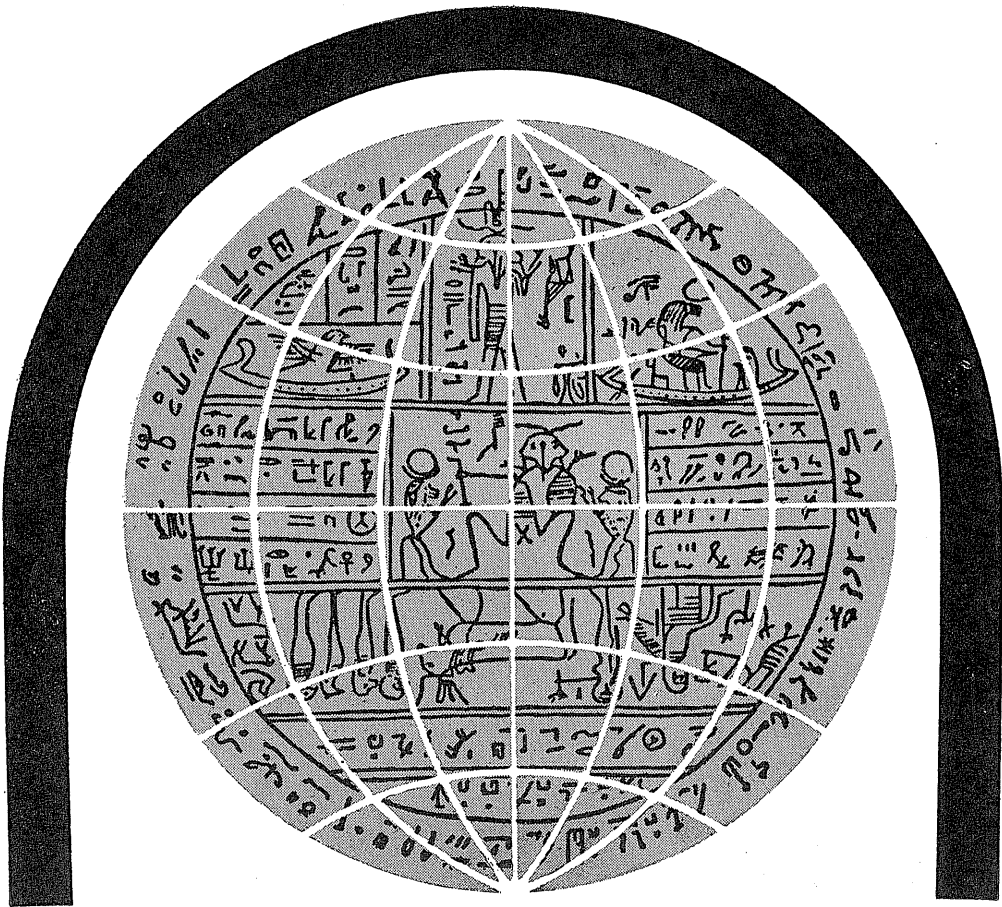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사도 행전 8 : 12~17)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내릴 수도 있으려니와 저와 함께 오래 머물지는 아니 하시느니라”(교리와 성약 130 : 23)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인 성신의 능력을 입어, 이같이 모든 일을 보고, 듣고, 알기를 간절히 원하였나니.”(니파이일서 10 : 17)○



세계 기록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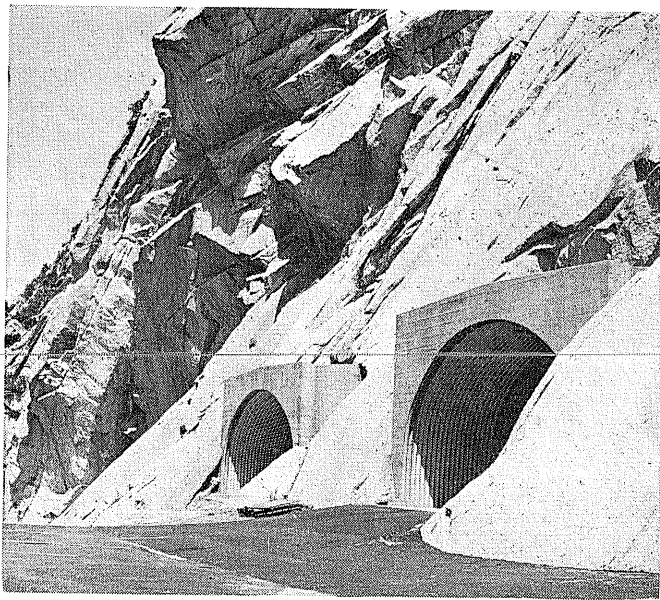
더글러스 디. 팔머

계보 위원회 회장 하워드 떠블유. 헌터(왼쪽)와 부회장이며 계보 위원회 감독인 테오도르 엠. 버튼 장로. (오른쪽)



● 세계 각처로부터 방문자들이 솔트 레이크시에 도착할 1969년 8월이 되면 세계 기록 대회는 마치 “유엔”과 같은 형태로 전개됨을 볼 것이다. 이 대회는 “불안한 현실에서의 기록 보존”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며 수천의 기록보관자, 역사가, 정부 관리, 마이크로필름 제작자, 사회학자와 그 외에도 기록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모이게 될 것이다. 이 대회는 1969년 8월 5일부터 8일까지 유타주의 솔트 레이크시에 있는 일천 구백만 달러의 건축비가 소요된 초현대식 건물이며 집회 센터인 솔트 팰러스에서 열리게 된다.

이 대회는 계보 위원회 창립 제75주년 기념식도 겸하게 될 것이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팔이 되는 계보 위원회가 주최하게 되겠으나 이에 대한 계획 및 협조는 계보 위원회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기관에도 널리 미쳐있다. “우리는 이 대회가 전 세계의 기록 담당자의 노력을 모두 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계보 위원회의 부회장이며 감독인 테오도르 엠. 버튼 장로는 말했다. 그는 또한 이 대회가 “귀중한 기록을 간직하고, 이것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하여 보존시키는 데에 있어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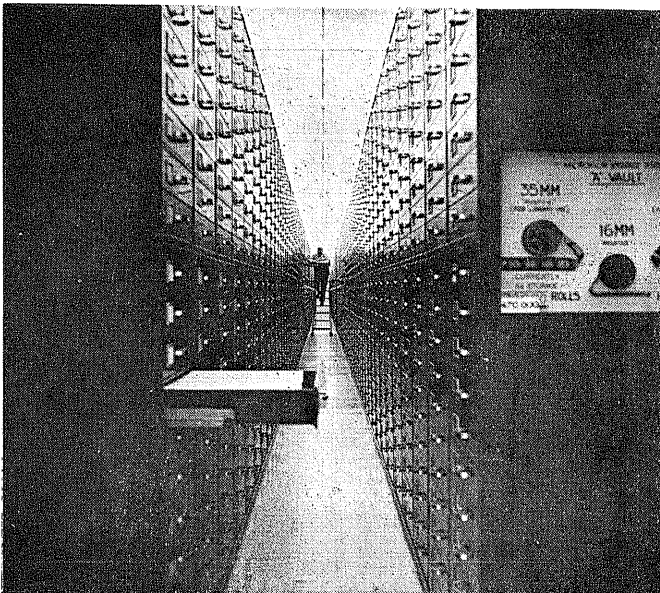


옆에서 본 리틀 커튼우드 계곡의 화강암 동굴.

계보 탐구에 열중하고 있는 회원들. 마이크로필름 판독기는 계보 위원회 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다.



계보 동굴 안에 있는 마이크로필름 저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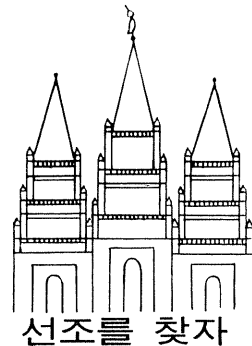
세상 사람들에게 협조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기록은 보호되지 않으면 분실되거나 소실되는 일이 있을 것이며, 혹은 부주의로 인하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위원회가 기록 보관에 관하여 관심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는 쉘트 레이크시 근처의 화강암 산에 장치된 기록 보관소이다. 이 대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쉘트 레이크시에서 약 50km 떨어진 리틀 커튼우드 계곡에 건축 중인 기록 보관소를 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기록 보관소 하나에만도 수백만 페이지의 기록을 간직할 수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록의 마이크로필름 촬영이 끝나면 그것까지도 이 굴속에 보관하게 될 것이다.

이 사업이야말로 말로 유례 없이 가장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기록에 관한 한가지 계획이며, 계보 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주 임무가이기도 한 것이다. 세계에서 마이크로필름 촬영기사들은 방대한 기록 수집을 위하여 매일 같이 촬영에 임하고 있다. 이 촬영 대상의 기록에는 하부지(下付地), 유언, 결혼 문서, 장례 문서, 교회 기록부, 여러 책 및 귀중한 것으로 알려진 기록이 포함된다. 동굴 속에 설치된 현대식 필름 현상소에서는 매일 500만 바퀴에 가까운 필름이 현상되고 있다. 이 마이크로필름은 수백 미터의 화강암으로 뒤덮힌 거대한 동굴 속에서 이상적인 온도와 습도 아래 보관되고 있다.

세계 기록 대회의 계획 담당자인 보브 알. 자브리스크 형제는 대회가 가까워 옴에 따라 매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에서 수 백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쉘트 레이크시에 와서 8월에 있을 이 대회를 위하여 미리 연회를 갖고, 준비모임을 갖고, 기타 여러가지 행사를 갖게 되면서 대단히 높아졌다. 이 사람들 중에는 오스트리아 인으로 세계에 유명한 계보 학자인 칼 프리드리히 본 프랑크씨도 있다.

세계의 저명한 기록 담당자, 역사가, 기록 보관인들은 이 대회에서 특별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이 대회에는 많은 마이크로필름 회사, 마이크로필름 가공업자, 사진기 및 계산기 같은 제품의 제조업자들이 그 제품을 전시할 것이다. <내외소식 참조> ○





영혼을 위한 투쟁

선교부장 서 현 보

● 지난 몇 주일동안 벨빈 제이, 벨라드 사도의 설교집을 읽고 있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을 복음 전도의 땅으로 헌납할 특권을 가지셨던 이 영적인 지도자는 1919년부터 1939년까지 사도의 직분으로 봉사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도가 그러했듯이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으로 인간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면서 그는 악마의 힘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사탄은 인간의 영혼을 빼앗기 위하여 그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명백히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니파이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면서도 그랬듯이 사도께서도 인간을 위협하고 있는 위협에 관해서 목청 높혀 경고하곤 하셨습니다.

“.....보라, 그 날에 악마가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하며,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육욕의 안식처를 쫓게하며 이르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리다.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하리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마음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의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

또한 보라, 다른 자들을 달콤한 말로 꾀어 저들에게 지옥이 없다 하며 이르기를 악마란 없는 것임에 나는 악마가 아니로다 하며 저들의 귀에 속삭여 말하기를 저들을 움켜 잡아 무서운 사슬로 엮어낼 때까지 하며, 그때로부터 저들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리니.”(나파이이사 28 : 19~22)

사탄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을 특별한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된 교회의 회원을 사로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어린 소년 요셉이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숲을 찾았을 때만 하여도 진리 회복의 사업을 어떻게 방해 하였는가를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악마가 먼저 나타나 선택된 예언자가 될 소년을 붙잡고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사로 잡고 있던 절박했던 파멸의 힘은 상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실로 사탄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벨라드 사도가 지적한 것과 같이 하나님도 역시 때가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소년을 방문하셔서 결국은 그리

스도께서 세상을 극복하시고 왕 중의 왕, 주의 주로서 이 지상을 다스리러 오실 수 있는 준비 단계로 이 위대한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기만하려 하며, 인간 스스로 자기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기에 분주합니다. 사탄은 세상 어느 곳이나 모병 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많은 병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편이냐?”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각자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주의 편인가를 결정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격렬한 전투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미국 서부 해안에는 수백년된 묵은 큰 나무로 울창한 산림이 있습니다. 곧고 높게 솟아오른 나무의 장엄한 위용은 보는 사람의 눈을 의심케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러한 거목 사이에는 쓸어져 있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같은 산림 속에서 벨라드 사도는 거목들 사이에 걸어서 보기에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쓸어져 있는 나무를 본 일이 있다고 말씀 하시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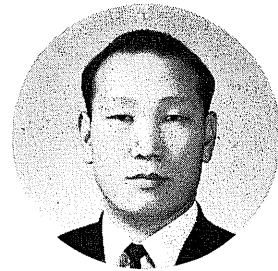
“세밀하게 조사 해 본 결과 나는 오랜 기간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작용이 나무 껍질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마리의 곤충이 바늘구멍 보다 더 크지 않은 구멍을 가로 질러 뚫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생긴 작은 구멍은 결국 대단치 않은 압력에도 견디어 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목은 쓸어져서 그 약점을 역력히 들어 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인간 생활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공명정대한 것처럼 보이고, 외관상으로는 모든 면에서 강하게 보이는 남자와 여자가 눈에 띄지 않는 약점이나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내버려 둬으로써 작은 구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공격을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대문을 열어 놓아 두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들의 적인 사탄을 재 인식하고 그에게 대항키 위해서 우리 자신을 튼튼히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표준을 힘써 지키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원리와 일치되는 생활을 하여 주님의 인도를 받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최후의 승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

시온에 나오라

중앙 지방부장 차 종 환



●어린이는 모태에서 태어나 어머니 품 안에서 성장한 후에야 사회인이 되는 것이고, 학생은 학교에서 배움으로 인하여 지성인이 되듯, 성도는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교회에서 영적인 양식을 얻어 성장하여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머니 품을 떠난 어린이는 고아와 같아서 잘 성장할 수 없으며,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불량아가 되기 쉬우며, 정상적인 지성인이요 양교인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가 교회 출석에 게을리 함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치 못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시온의 땅에 집합하기를 원하셨읍니다. (교성 63 : 36)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가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영혼의 병원이요, 진리의 보관소요, 하늘 백성의 양성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힘써 모이라, 힘써 모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이 많으나 마지막 날에 저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세상에 없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핍박이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 상금이 크도다.」 하셨음을 기억합시다. 불신자는 땅에 속하고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하니 하늘과 땅은 상반되는 것이기에 땅에 속한 자에 의해 하늘에 속한 자가 핍박을 받을만 함을 인정합시다.

교회 제도에 염증을 내거나 흥미 본위의 곳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됩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도와 규약과 법률이 있는 것과 같이, 교회도 일정한 제도와 규율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질서의 집이라 합니다. 이 질서의 집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방종적이요, 문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내가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함으로 내가 기쁨을 얻는 곳이기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정 문제로 교회 출석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때 장단점이 모두 있는 것입니다. 단점을 고쳐 주고 장점을 칭찬하고,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보고, 너그럽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웃이 파오를 범했을 때 우리는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70번째 7번을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나에 대한 헐담이나 꾸짖음이나 오해로 상심해서는 아니되고 모든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정확히 판단하심을 상기합시다.

교리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출석율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명언도 있고, 무

식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도 있으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시다. 교회를 왔다가 떠난 사람은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게으름으로 인해 교회 집회에 지각하거나 출석율이 낮아져도 안됩니다. 엘마서 60장 14절에 “백성이 나태하고 정부의 나태함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백성에게 내리리라.” 했으니 게으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모이면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혼자할 수 없는 일도 모이면 할 수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말씀도 있었읍니다. 숲밭도 모여 있으면 잘 타고 화력이 좋으나 흩어져 있으면 곧 꺼지고 맙니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이유도 이런데 있고 단세포보다 다세포가 더 고등하고 강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깡패나 치기배들은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집단을 형성 합니다. 하물며 선한 일을 하고 구원 받기 위해 모이자는데 나태하여 진다는 것은 언어도단 입니다.

둘째,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혼자 집에서 믿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이브」도 혼자 믿다가 넘어졌다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상호간의 격려를 받아 작은 신앙을 유지하고 나아가 성장 시켜야 합니다.

한 두번 빠지고 보면 서먹해 지고, 그로 인하여 점점 교회가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 타락하게 되는 성도가 있는 줄 압니다.

셋째, 때는 마지막 날이 가까워졌음을 각성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주님 앞에 모이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주님의 날에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만물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아름답고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밭알이 밭 그릇에 있을 때는 값이 있고 귀한 것이 되지만 땅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는 밭알은 값을 상실합니다. 성도가 주님의 날에 있어야 할 곳은 교회이며 이곳에 모여야 합당하며 아름답고 귀한 인생의 품위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아름다운 화창한 봄이라고 산과 들로 가지 말고 교회에 힘써 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라면 꼭 참석합시다. 미국의 대통령 워싱턴은 일평생 교회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떠나면 저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신이 같이 하기를 빌며……. ○

성도의 벗
1967년 10월 4일
1969년 4월 1일
공보부 등록 라 1932
발행(매월 1회 1일발행)

너 무도 자 주 잇 는 울 법

리차드 엘. 이반스

(십이사도 정원회)

자유, 법률, 무법, 또는 어느 것이 법적이며 도덕적이며 용납 할 수 있느냐 혹은 없느냐를 따질 때에 사람들은 너무도 편리한 대로의 융통성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법률을 통과시키고 공포하여 실행하나, 역시 그에 비례하여 법적 투쟁이 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다 더 간단 명료한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책의 설명이나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듣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십계명과 같은 율법 말입니다.

물론 십계명이 현대의 복잡한 생활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에는 기본 원리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산꼭대기에 강림 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찌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 하지 말찌니라.

“간음하지 말찌니라.

“도적질하지 말찌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찌니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찌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찌니라.”

“이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와 명하신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내가 하늘에서 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상의 원리가 폐기 되었다는 기록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추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도의 과학 기술과 이 율법을 없애고 합리화하며 불용성을 제한하는 세력이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다른 원리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한 마음을 고치며, 난폭한 정신 상태를 고쳐주며, 혼탁한 우리를 깨끗이 하며, 착잡한 사람의 생활에서 고통을 가라앉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인 것입니다.

* 출애굽기 19, 20장 참조